

생명의 보고(寶庫)
부천 대장들녘

지키는 사람들 vs 개발하려는 사람들
(2011~2022)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생명의 보고(寶庫)
부천 대장들녘

지키는 사람들 vs 개발하려는 사람들
(2011~2022)

목차 contents

6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생태계 보고(寶庫), 대장들녘 지키기 기록

8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

9 01 | 대장들녘 지키기 전사(前史)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반대 부천대책위원회 활동

9 02 |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

11 대장들녘 활동개요

12 대장들녘 가치

13 01 | 논습지 생태적 가치

15 02 | 도시 미기후 조절 가치

16 03 | 지역 향토문화 계승 가치

18 04 | 미래세대 농업체험·환경교육 가치

20 대장들녘, 훼손 또는 위험요인

22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활동

24 01 | 대장들녘 생명포럼 & 토론회

26 02 | 정책대안 ‘국가농업생태공원’

28 03 | 생태조사 활동

30 04 | 대장들녘 가족농부 활동

31 05 | 시민캠페인

32 06 | 613지방선거 정책제안

32 07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32 08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한국환경클럽기자상 수상

32 09 | 경기도 정책토론회,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32 10 |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대응

33 11 | 부천대장 신도시 지구지정 항의 기자회견 및 시민캠페인

33 12 | 대장들녘협의체 구성 및 운영

33 13 | ‘대장들녘 양서류 등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협의

33 14 | 부천대장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응활동

34	대장들녘지키기 글 모음
36	01 김포공항습지와 부천의 미래
39	02 대장들녘 논습지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변화
48	03 천마리가 넘는 제비와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
50	04 생명의 땅 30만평 김포공항습지와 120만평 대장동 평야의 운명
52	05 대장들녘, 미래를 위한 선택
56	06 대장들녘 가족농부 시농제 축문
58	07 참계잡이 풍경을 즐기기 위하여
62	08 2018년 대장들녘: 사람과 자연을 품다
64	09 우리에게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이 절실한 이유
67	10 시흥 호조벌과 일본 도요오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71	11 대장들녘지키기 정책제안: 대장들녘, 국가농업생태공원
74	12 지속가능한 대장들녘을 위한 발칙한 상상 모음
76	1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78	14 대장신도시, 괴상하고 저급한 ‘친환경 개발논리’의 날조를 멈추라
81	15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토론편
90	16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 ‘대장들녘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97	17 논 120만평과 아파트 2만 세대
100	18 4·15 총선후보에게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개발추진 관련 시민공론화 정책제안
102	19 3기 신도시 부지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입니다!
103	20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품을 수 있는 수천수만 명의 사람

106 대장들넉지키기 성명서 모음

108 01 | 김포공항습지 매립 반대한다. 골프장 사업 철회하라.

109 02 | 대장동 수변의 버드나무는 누가 다 잘라냈는가?

111 03 | 대장들넉은 땅 투기 대상이 아니다!

113 04 | 국토부 대장신도시 발표 후 부천시민 반응
'부천은 숨 막히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116 05 |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 수도권 생태계 보전에 치명적 재앙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논습지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118 06 | 부천시는 시민들의 환경재앙 우려에 가짜뉴스로 답하는가

121 07 | 3기 신도시 예정부지(부천대장 신도시)에서 멸종위기종 맹꽂이 집단서식지 발견

123 08 | 서울 집값 잡겠다고 부천시민 삶의 질을 파괴하는 부천대장 신도시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126 09 | 결의문: 3기 신도시 문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되는 3기 신도시, 시급성도 실효성도 없다 -

128 10 | 부천대장 신도시, 일방적인 지구지정을 우려한다.

130 11 | 70년대식, 구시대적 주민공청회, 국토부와 LH를 규탄한다!

132 12 | 환경 파괴, 수도권 과밀화, 집값상승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34 13 | 수도권 3기 신도시, LH 직원과 선출직 의원들 투기 의혹,
전면 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136 14 |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기이후부터 해소하라

138 관련자료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생태계 보고(寶庫), 대장들넉 지키기 기록

12년의 시간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은 2011년 김포공항 골프장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계획이 2010년부터 부천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김포공항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대장들넉 논습지 120만평의 생명다양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2011년부터 김포공항 골프장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부천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서울시립대 연구팀과 함께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장들넉 생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보호종만 총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이 출현하여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서 대장들넉은 수도권에 드문 생태계의 보고(寶庫)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두루미, 큰기러기, 금개구리와 맹꽁이

대장들넉을 상징하는 생물종들입니다. 민족의 영물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가 2012년 70마리, 2013년 32마리, 2014년 27마리, 2015년 39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큰기러기는 2016년 하루에 4,328마리나 관찰되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2019년 24차례 진행된 시민조사단 활동에서 금개구리는 자그마치 1,633마리, 맹꽁이는 셀 수 없을 정도인 10,383마리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지형 도시인 부천에서, 대장들넉은 한강하구에서 부천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길로 확인되면서 대장들넉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몇 번의 변곡점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조사단의 생태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양서류 생태보전지역을 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부천시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7년 '대장들넉 친구들', 2018년부터는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23개 단체)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노동·연구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합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은 2018년 창립된 이후 시민조사단 생태조사 활동, 대장들넉 가족농부, 다양한 시민캠페인, 대장들넉 생명포럼, 대장들넉 지키기 정책제안, 총선후보 대장들넉 시민공론화 정책제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기자클럽상 수상 등 시민운동의 ABC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활동 하나 하나에는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습니다.

사실 부천시에서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때만 해도 산업단지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과도하게 개발된 수도권에서 생명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파괴하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32종의 서식환경이 문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3기 신도시’ 모토는 “서울 중심에서 30분 거리”이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하며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 강행되는 개발

식량자급률 48.9%,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23.4%에 불과한 나라에서 수도권 논습지를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어떻게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장들녘 논습지 120만평을 파괴하고, 아파트 2만 세대를 짓는다는 것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없는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세계 유수의 나라들은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큰 노력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가개발부서 환경담당자로부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실질적인 시민공론화는 미비한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부천의 환경에 어떤 재앙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 하지만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한 12년 활동을 종합보고서로 묶으면서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기록을 남깁니다.



2022년 4월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 대표자 일동



1.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

대장들녘 논습지 120만평을 지키기 위한
부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동은 201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2년간 전개되고 있다.

1)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전사(前史)

김포공항 골프장건설 반대 부천대책위원회 활동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0년 11월~12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27홀 규모 - 서울 18홀, 부천 9홀)하였고, 2011년부터 부천지역에 ‘골프장 건설계획’과 ‘김포공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으며 “수도권에서 드문 생물다양성 지역”이라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김포공항습지 골프장건설 반대 부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김포습지 시민조사단 활동, 시민캠페인, 골프장 반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시민조사단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4)’를 발간하였다.

참가단체 :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사랑의교회,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부천녹색당(13개)

‘김포공항 골프장건설 반대 부천대책위원회’는 골프장을 막지는 못했지만 생태보전 지역 4곳을 설정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였다.

2)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출범

부천시에서 2016년 10월부터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7년 1월 ‘대장들녘 친구들’이 결성되어 대장동 가족 논농사, 대장들녘 시민조사단, 겨울철 철새 모이주기 등 시민참여 활동이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노동·연구 단체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2019년 5월 국토부가 3기 신도시에 부천대장동 개발을 포함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기 시작한다.

참가단체: 광명~서울민자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강서, 광명, 구로, 부천대책위),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부천녹색당,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정의당 부천시원미지역위원회/소사지역위원회/오정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나가는 부천연대, 환경생태연구재단(23개)

정책위원회: 최진우(위원장, 환경생태연구활동가), 한봉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임종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정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대장들녘 항공사진 (출처:부천시 홈페이지)

2. 대장들녘 개요

대장들녘은 김포공항 남서쪽에 형성된 넓은 평야로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접하고 한강하구와 연결된 굴포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곳은 과거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평평야, 김포평야, 부천평야로 지명되었는데, 부천시 중동(1994년)·상동(2002년) 신도시 개발이후 부천의 마지막 남은 들판을 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에는 대장동 마을 이름에 유래하여 ‘대장들녘’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장들녘의 규모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약 120만평이고, 굴포천 동쪽의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논습지를 합치면 240만평에 달하는 넓은 논습지이다. 이곳은 동부간선수로, 굴포천, 베르네천, 여월천이 흐르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그린벨트로 도심지의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 1) 2015년 5월경, 부천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약 70만평 규모의 ‘대장동 산업단지’ 건설을 발표, 2016년 10월 12일에는 부천시가 나서서 대장들녘 보전용지 약 70만평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고, 급기야 2017년 12월 11일에는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부천시에서 대장동 개발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천의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2) 2019년 5월, 국토부가 3기신도시 대상지로 부천 대장동을 발표한 후, 국토부를 상대로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장들녘 항공사진 (출처:부천시 홈페이지)

3. 대장들녘 가치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

부천의 도시면적은 겨우 53.44km² 여기에 87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에서 발표한(2013년)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결과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61.7%로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이 54.4%)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m²로 최하위이다. (2014년 산림청 통계, 수원시 4.2m², 고양시 4.42m², 성남시 6.11m², 용인시 5.75m²로, 안산시 5.77m²)

부천은 도당산-원미산-성주산-철마산-천마산-계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로, 미세먼지도 전국 최악수준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통계, 미세먼지 연간 나쁨 초과일수 추이 : 전국 59일, 수도권 78일, 경기도 88일, 부천 96일)

1) 논습지 생태적 가치

과거 이곳은 한강 및 굴포천 하류의 범람원 지역으로서 다양한 수계가 분포하여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동부간선수로에서 4월 중순부터 물을 끌어들이 모내기를 하고 10월 중순에 물을 빼어 추수하는 시스템이다. 벼농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절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정한 수위와 수량을 관리하고 비옥한 토양 및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강하구의 논경작지가 성토되어 밭, 비닐하우스로 형질 변경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논을 온전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 생물서식지로서의 양호한 기능을 하고 있다.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시민조사단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4)’에 따르면 습지를 포함한 대장들녘 일대에 총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의 법정보호종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김포공항습지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의 먹이터로서 논습지의 중요성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정되었다. 김포공항습지를 제외한 논습지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총 52종이 조사되었다.



대장들녘 일대 현재 토지이용 현황도 (2016. 12. 조사)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큰기러기는 대장들녘의 겨울철 논을 잠자리와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2008년 첫 조사에서 250마리 관찰되었던 것이 2016년 겨울조사에서는 하루에 4,328마리나 관찰되었다. 저녁부터 대장들녘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아침에 먹이활동을 하다가 낮에 한강하구로 이동하여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한강하구 농지의 개발과 형질변경으로 큰기러기의 무리가 대장들녘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장들녘의 큰기러기 (2017. 12)



[사진5] 대장들녘의 재두루미 (2018. 12)

최근 대장들녘은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월동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와 흑두루미 1마리, 2013년 재두루미 32마리, 2014년 27마리, 2015년 39마리가 발견되었다.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교란되어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이곳까지 날아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겨울철 논 성토작업이 진행되어 화물차와 불도저에 위협을 느껴 2015년에 4마리까지 줄어들었고, 2016년, 2017년에는 2마리만 목격되었다가 2018년 겨울에 논성토작업이 줄어들자 12월에 14마리까지 증가하였다. 대장들녘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의 중요한 먹이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대장들녘에 서식하는 금개구리 (2018. 6. 23)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땀방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눈습지이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금개구리와 땀방이는 2016년 대장들녘 눈습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 논에서 금개구리와 땀방이가 다수 관찰되었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눈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땀방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땀방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인근 아파트 앞 논에서 금개구리와 땀방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작년에는 친환경농법 뿐만 아니라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목격되었다. 대장들녘은 향후 친환경 유기농법을 통해 수도권 논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으로 기대할 수 있다. 들녘 전체가 금개구리, 땀방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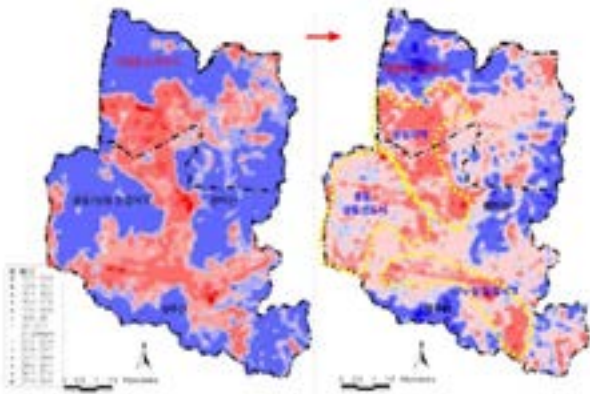
대장들녘에 서식하는 땀방이 (2019. 7. 28)

2) 도시 미기후 조절 가치

녹지의 수목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작물에서도 증발산되는 수분의 기화잠열이 주위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후를 순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논이 수면 증발을 통해 여름철 대기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대장들녘은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자연 인프라이다. 부천에서는 굴포천과 주변 유역에 형성된 논경작지가 성주산과 원미산으로 연결되는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지와 바람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바람통로는 도시에서 발생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과 공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도심에 정체되지 않도록 확산시켜 대기오염 농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천의 중상동 개발 이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변화 회귀분석 연구결과, 논에서 시가지로 변화한 곳은 평균 2.840℃ 온도가 상승했고, 녹지율 65%를 확보해야만 1℃ 이하로 온도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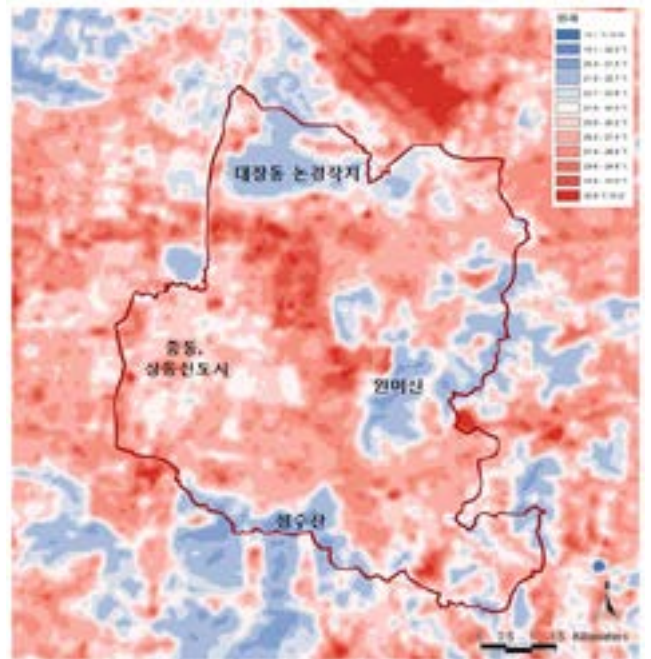
개발 전 (1989년 5월) 개발 후 (2000년 5월)



부천시 개발전 후 지표면 온도
(출처: 기경석(2006) 대도시 외곽지역 논 경작지의 토지이용 및 피복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모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최근 2014년 9월경 인공위성 영상분석을 통한 지표면 온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녹지지역과 개발지역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미산과 성주산을 비롯한 대장동 논경작지가 부천의 핵심적인 저온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도심 밀집지역 및 공장지역은 심각한 고온역을 형성하였다.

그나마 신도시내 조성된 공원과 아파트단지내 식재된 조경수목으로 인해 도시온도의 고온현상이 완화되고 있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장들녘 논이 사라지게 된다면 부천 도심의 폭염과 대기오염은 가속화될 것이며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부천시 최근(2014. 9. 19) 지표면 온도

대장들녘 논습는 산림과 더불어 도시폭염과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논습지가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지와 바람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논이 사라지게 된다면 도시폭염 및 열섬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며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에너지량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도시관리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3) 지역 향토문화 계승 가치

대장동 마을은 마을의 원형과 경작지가 남아있는 전통마을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외곽의 생산녹지와 자연마을을 유지해온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의 낙후, 경제적 소외는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마을은 인구밀집도시 부천에서 지역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있는 중요한 도시 속 농촌마을이다.

대장동은 조선후기 도평도호부에서 한양까지 큰길로 연결되어 계양 활어장으로 장보러 가는 장사꾼들, 부평향교로 학문을 배우러 가던 선비, 소달구지 및 농사꾼 등이 이용하는 ‘큰 재가 있는 마을’로 소개하고 있다. 대장들녘의 과거에는 농경지는 구릉지에 일부만 있었고 개흙과 갈대습지가 넓게 형성된 곳이었다.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의 일환으로 1925년 한강에서 물을 들여오는 데부둑(동부간선수로) 건설을 통해 대규모의 평야가 형성되었다. 넓은 들

녘이 조성된 이후 대장동은 지역 거점 농촌마을로 성장하여 1960년대부터 주변의 학생들이 논둑길에 긴 행렬을 이루어 대장초등학교에 등교할 만큼 인근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1972년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농촌근대화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 통일벼 시범단지로 운영되는 등 수도권의 중요한 농촌마을이었다.

마을주민의 구술과 기록자의 의견에 따르면 대장동 마을은 60~70년대 농촌의 모습을 오롯하게 지키고 있는 곳으로, 도시 속의 자연마을과 농촌마을 삶의 기운이 고스란히 소박하게 베어 있는 보금자리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밀도 도시로 변한 도심과 달리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넓은 들녘, 동부간선수로와 함께 농가주택, 골목길, 다리, 도당나무, 솟대, 연지방아들, 우물 등 향토적 마을경관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섬말, 동그랑재, 새보둑, 한다리 등의 향토지명이 여전히 살아있고, 주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황어장, 아기장사, 말무덤이야기, 도당할머니나무, 한다리와 구렁이이야기, 굴포천 범람 등 많은 향토설화자원이 넘쳐나는 곳이다.

< 대장동 마을 향토문화 자원 >

대분류	중분류	자원명
지역자원	지역시설자원	대장동회관,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 오쇠교
	지역경관자원	동그랑재, 굴포천, 여월천, 오쇠천, 데부둑(동부간선수로)
문화자원	문화경관자원	대장동농가주택, 동그랑재소나무, 동그랑재육각정, 마을입구솟대, 부평평야, 연지방앗돌, 느티나무 가로수
	문화축제자원	대장농악대, 섬말도당, 정월고사반, 큰말 도당
역사자원	과거인적자원	반남박씨호군공파, 박원만, 데부둑 중국노동자
	향토설화자원	굴포천범람주민대피, 널말입구장승, 대장동강습소, 대장이, 대제, 데부둑, 도당제, 도당할머니나무, 돌다리들, 동그랑메, 동그랑재유래, 말무덤이야기, 말무덤자리, 반남박씨집성촌, 방오리보, 번개들, 봉오리보, 새보둑, 섬말 대동우물, 섬말, 섬말과 큰징검다리, 세집매, 신보, 아기장사터터쫓가리, 아기장사와천마, 앞벌, 연지방앗간, 전야, 중앙교, 큰말, 한강수리조합, 한다리, 한다리들, 한바다, 황어장

출처: 대장동주민협의회(2015) '오롯한 삶의 터, 대장동을 말하다' 재구성



대장들녘의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자연마을의 살아있는 향토문화를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근대 농업유산으로서 1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대장들녘의 개발은 360년간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지역의 오래된 향토문화의 자취를 없애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향토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향토사료에 기록되거나 향토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게 만들어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대장마을 동그랑재
대장마을 350년된 들메나무



4) 미래세대 농업체험·환경교육 가치

논은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환경교육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는 논외 생산량 및 부동산 지가로 매겨지는 경제적 가치에 함몰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대장들녘은 도시 어린이들이 들판에서 뛰어 놀며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실컷 보면서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부천의 중동과 상동이 신도시로 개발되었고 서울의 마곡지구가 개발되어 이제는 대장들녘만 남았다. 최근 대장들녘은 농업체험 및 환경체험 활동지역의 중요한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천시는 손모내기 체험, 우렁이 방사, 메뚜기 잡기, 벼베기 체험 등 친환경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오정동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협의회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환경생태 해설을 들어가며 가족이 함께 도심 속 농촌마을을 견고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옛 기억과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자 ‘대장동 논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년 ‘오정 희망마을 생태학교’를 운영하여 밭작물 체험, 대장동 농촌 체험, 야생조류 생태, 논생물 생태, 곤충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장동 친환경 벼농사 체험 (부천시, 오정구청 등)



대장동 논학교 (오정동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협의회)



오정 희망마을 생태학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천의 지역 환경교육활동가 단체 ‘청미래’는 대장동 마을에 찾아오는 제비둥지를 조사하는 ‘학생 제비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동화책에서나 보았던 제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푸레생태교육센터와 대장들녘 가족농부를 중심으로 지역농부에게 강서구 오곡동 농지를 임대하여 도시민 가족농부 공동체를 기반으로 토종벼를 심고 금개구리쌀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마을 학생제비모니터링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부천에 찾아오는 제비



어린이 논농사 및 논생물 조사체험



대장들녘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부천시 초등,중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통해 청소년들에게 식생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장들녘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세대의 살아있는 체험교육 터전을 잃게 된다.

4. 대장들녘, 훼손 또는 위험요인

부천시는 그동안 대장동 70만평 부지에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부천 테크노폴리스)’을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이 열악한 부천에서 생명다양성이 넘쳐나는 대장들녘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 부천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오랜 기간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부천시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원 343만㎡(약104만평) 부지에 주택 2만호를 건설하는「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고, 대장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 중 104만평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

위 치 :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면 적 / 호 수 : 343만㎡(104만평) / 2만호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사 업 기 간 : 2020년~2029년

추진 일정 : 2019년 6월~약 3개월간: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년 9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2020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0년 12월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계획 승인

2021년 8월경: 공사착수



국토교통부 개발구상(안) (2019. 5. 발표)

< 대장신도시 개발로 위기에 처한 대장들녘 >

가치	문제점
생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월동지 훼손, 한강하구 생태계에도 영향 • 맹꽁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 제비, 물총새, 개개비 번식환경 악화로 도래 개체수 급감
도시 미기후 조절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폭염 및 열섬현상 가속화되어 도심까지 악영향 • 인근 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 • 에너지량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및 도시관리 비용 증가
지역 향토문화 계승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마을의 살아있는 향토문화유산 훼손 (100년 근대 농업유산, 360년 전통마을)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농촌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미래세대 농업체험· 환경교육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농업체험·환경교육 터전 상실 • 지역 친환경 쌀 생산지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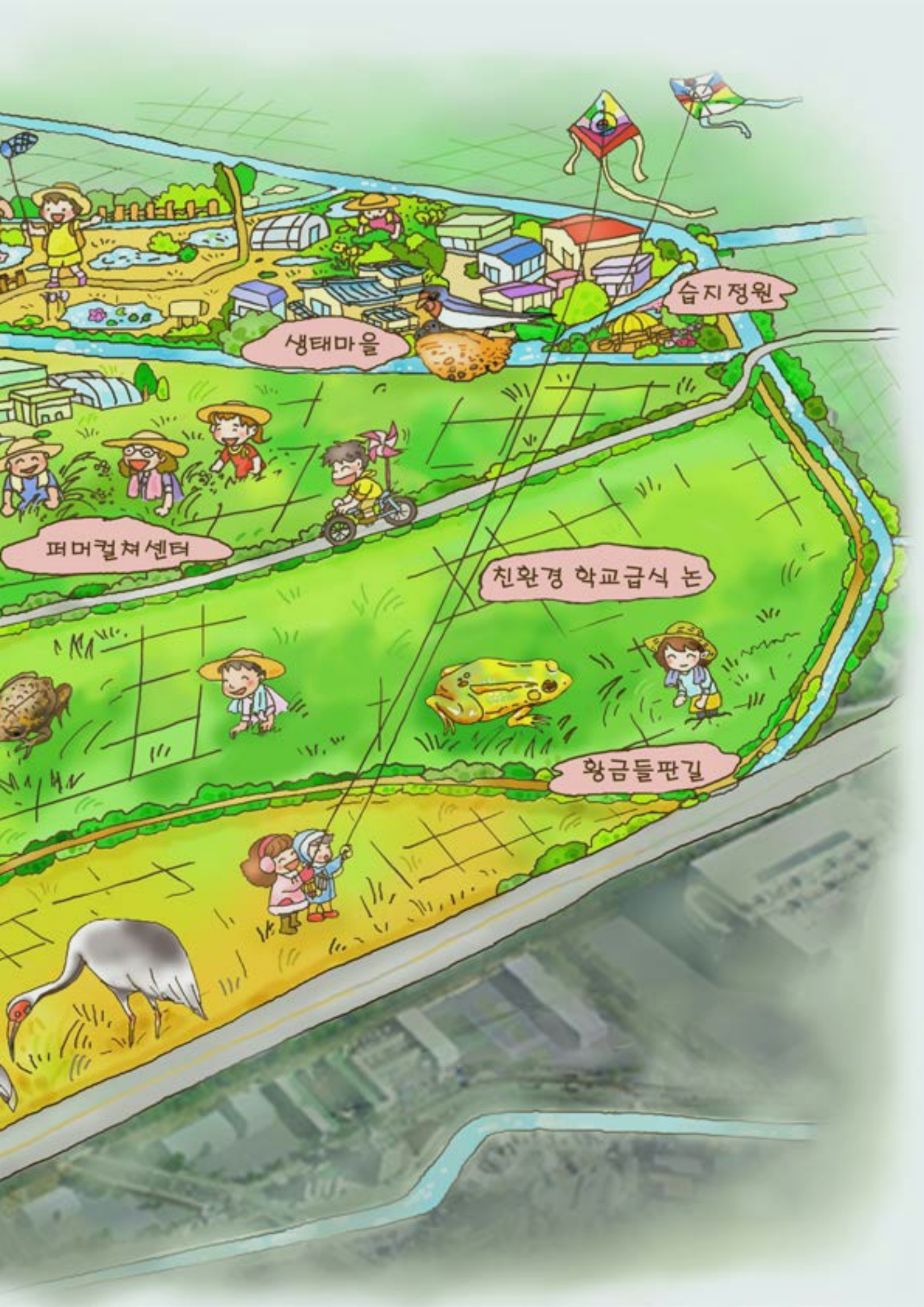
습지생태원

논습지문화센터

가족여가숲

국가농업생태공원
연구소

5.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활동



생태마을

습지정원

퍼머컬처센터

친환경 학교급식 논

황금들판길

5.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활동

1) 대장들녘 생명포럼 & 토론회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대장들녘이 지니고 있는 생태환경, 역사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전문가들과 개발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정	주제 및 내용
1차 포럼 2018년 1/25(목)	<p><대장들녘이 품은 생명과 우리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p>발표1. 대장들녘 생물다양성 및 환경생태적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p>발표2. 대장들녘 논습지 시민참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낙경 (부천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2차 포럼 2018년 2/27(화)	<p><도심 대기오염과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장들녘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박병상 소장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p>발표. 친환경 부천을 위한 도시 미기후환경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응호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3차 포럼 2018년 3/29(목)	<p><도심의 대기오염과 시민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p>발표1. 부천의 미세먼지 현황 (대기질 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p>발표2. 도시의 대기오염과 시민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한 교수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4차 포럼 2018년 5/10(목)	<p><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권오광 대표 (부천민중연대 상임대표) <p>발표1.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5차 포럼 2018년 9/17(월)	<p><생명의 땅 시흥 호조벌 탐방: 생태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시흥지속협 강석환 사무국장
6차 포럼 2018년 10/2(화)	<p><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환경경제의 사례와 비전></p> <p>발표1. 5차 생명포럼 : 생명의 땅 '시흥 호조벌' 탐방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p>발표2. 일본 토요일카 사례로 본 지역을 살리는 환경창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분부장, 전 SBS 환경전문기자)
7차 포럼 2018년 11/6(화)	<p><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 영향평가></p> <p>발표. 대장들녘 생태요충지 공유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발표: 전재경 박사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p>8차 포럼</p> <p>2018년</p> <p>12/4(화)</p>	<p><2018 대장들녘, 사람과 자연을 품다_2018 대장들녘 활동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이택규 (부천환경교육센터 대표) - 인사말: 권오광 공동대표 (부천민중연대 상임대표) - 작은공연: 부천YMCA 어린이Y 친구들 - 활동보고1: 대장들녘 생명포럼 (최진우 정책위원장) - 활동보고2: 대장들녘 생태조사 (박다정 시민행동 간사) - 활동보고3: 대장들녘 가족농부 (최혜연, 김민재, 은재 부천시민아이쿱생협) - 활동보고4: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캠페인 (김홍여 부천Y등대생협 마을지기) - 특별강연: 김정욱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대장들녘 퀴즈, 1년 활동 사진전 등
<p>9차 포럼</p> <p>2019년</p> <p>8/30(금)</p>	<p><3기 신도시와 서민 주거문제></p> <p>발표. 3기 신도시, 서민주거안정인가? 투기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김헌동 본부장(경실련 부동산건설본부)



대장들녘 생명포럼 웹자본



대장들녘 생명포럼

2) 정책제안: '국가농업생태공원'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대장들녘이 지니고 있는 생태환경, 역사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전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은 2018년 5월, '제4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산업공단 개발이 아닌 국가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을 제안하였다.

- (1) 대장들녘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며 원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태자원화를 통해 농업생태공원을 조성,
- (2)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
-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대장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생태문화적 마을만들기를 통해, 대장들녘, 마을주민 도시민들이 상호 공생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 수도권 100%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 도시민의 친환경 체험농업의 산실
 - 이익의 주민환원과 사회적 공유경제의 실현
 -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협동조합의 산실마련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제비,금개구리,맹꽁이,재두루미,큰기러기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 도시귀농, 농업관광, 생태관광 등 각종 농업콘텐츠 및 6차 산업 개발
 - 논습지문화센터, 퍼머컬처센터를 통한 교육문화 및 체험 거점 마련
 - 한강하구 습지생태연구 거점으로서 국가농업생태공원 연구소 유치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국가농업생태공원 구상안' (김현주 만화가 그림)



부천시 개발계획 조감도

3) 생태조사 활동

‘대장들녘 시민조사단’을 꾸려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대장들녘 생태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논성토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계절별 서식생물 조사활동을 함께 하였다.

일정	주제 및 내용
2017년 11월 25일(토)	<대장들녘 논습지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들녘이 품은 겨울 생명 > - 시민,전문가 50명 참여, 5팀으로 나눠 조사활동 후 팀별로 찾은 생물종 발표 -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재단과 공동진행
2018년 4월 27~28일	<대기질 조사> - 부천시지역 10곳 샘플조사, 대전대학교 환경모니터링연구실 분석의뢰하여 4차 포럼에서 결과발표
2018년 6월 3일(토) 7시~15시	<대장들녘 금개구리 대탐사> 시민,전문가 75명 참여하여 2시간 동안 금개구리 96마리 발견 - 서울 오곡동, 부천 대장들녘, 인천 서운평야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금개구리 조사활동 -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재단, 인천녹색연합 공동진행
2018년 6월 30일(토) 7월 03일(화) 7월 09일(월)	<대장들녘 멍꽂이 조사> - 시민조사단과 멍꽂이 청음 및 산란지 조사
2018년 7월 03일(화) 7월 09일(월)	<YTN 다큐 ‘녹색의 꿈-위기의 양서류’ 촬영> - 개발로 인한 논습지 감소로 양서류 개체수 급감에 대한 내용 - 8월 7일(화) 방영
2018년 12월 22일(토)	<철새 모니터링 및 법씨 먹이주기> - 시민들과 함께 재두루미, 큰기러기등 겨울철새 모니터링하며, 대장들녘에서 재배한 법씨 먹이주기 행사
2019년 7월 26일(금)	<멍꽂이 탐사> - 시민, 전문가 20여명 참여 - 개발 부지 내에 멍꽂이 수천마리 청음 및 성체 발견
2020년 6월 5일(금)	<금개구리 생태탐사> - 지구지정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후, 20여명이 참여하여 생태탐사 진행
2020년 7월 11일(토) 7월 18일(토)	<양서류 시민조사단> - 11일 야간조사(12명), 18일 주간조사(26명), 금개구리 멍꽂이 조사
2020년 9월 12일(토)	<양서류 시민조사단> - 전문조사단 8명, 시민조사단 10명



금개구리 대탐사 (2018. 6. 3)
 개발부지에서 발견된 금개구리 (2018. 6. 3)
 맹꽁이조사 (2018. 6. 30)
 양서류 시민조사 (2020. 7. 11)
 재두루미 먹이주기 (2019. 12. 22)
 대장들녘에 찾아오는 재두루미 가족 (2019. 12. 22)
 맹꽁이야간탐사 (2019. 7. 26.)

4) 대장들녘 가족농부 활동

2017년부터 3년째 한마지기(1,200㎡) 논을 임대하여 벼농사를 함께 지음. 매년 30가족(80여명)이 참여하여 전통방식(손모내기, 낫으로 벼베기, 흘테로 탈곡)으로 친환경 벼농사를 경험. 매달 프로그램을 통해, 한해동안 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며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	주제 및 내용
5월	가족농부 첫모임 (인사나눔, 한해농사계획나눔) 침종 및 모판만들기
6월	시농제 & 모내기
7월	논습지 생물 모니터링 뜯모 심기 / 논둑 풀베기
8월	피사리 / 논둑 풀베기 벼꽃 세밀화 그리기
9월	짚풀공예 논두렁 달빛산책
10월	허수아비 만들기
11월	손벼베기 & 수확제
12월	논경작 보고 & 시식회 겨울철새 모니터링 & 볍씨 먹이주기



대장들녘 가족농부 손모내기
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최어민 가족농부 그림일기

손벼베기
흘테로 탈곡하기

5) 시민캠페인

대장들녘의 가치와 대규모 개발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론화하여 공론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시민 캠페인을 전개.

- 2018년 1월 : 대장들녘 스토리를 담은 벽걸이 달력 제작
- 2018년 6월 : 텀블벅 클라우딩펀딩 ‘대장들녘 재두루미 뱃지 판매’(수익금 2,221,000원, 150여명 참여)
- 2018년 3월~현재 : 부천시 곳곳에서 유인물 배포, 개발찬반 스티커붙이기, 자전거 라이딩 캠페인 등 진행.



2018 대장들녘 달력



시민캠페인 (중·상동 일대 자전거 라이딩)
재두루미 뱃지



시민캠페인 (부천역 마루광장)

6) 613지방선거 정책제안

-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 및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요구
-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 ‘새로운 경기위원회’ 지역정책 청원 : “대장들녘의 미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조회수 2629, 댓글 229개)



사진41. 613지방선거 시장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2018. 5. 23)

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환경권을 인권 문제로 진정 접수한 국내 첫 사례로, 대장들녘 개발이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접수(2019년 7월 9일)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인권친화적 도시 개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2020년 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진42. 국가인권위 진정접수 기자회견 (2019. 7. 9)

8)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기자상 수상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대장들녘지키기를 응모하여 2019년 11월 22일(금) 개최된 시상식에서 환경기자상을 수상. 대장들녘의 가치와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됨.



사진43.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기자상 수상 (2019. 11. 22)

9) 경기도 정책토론회,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에서 주관하여 '3기 신도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 이를 계기로,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인 인천 계양, 부천, 고양, 수원, 안산지역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시작됨.



사진44. 경기도 정책토론회 (2019. 12. 6)

10)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대응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오정어울마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최진우(정책위원장), 문정원(시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참가한 시민 여러 명이 우려와 문제제기가 제기함.

11) 부천대장 신도시 지구지정 항의 기자회견 및 시민캠페인

2020년 5월 25일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 6월 5일 항의기자회견을 대장들녘에서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국토부는 개발계획을 강행함. 지구지정이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요구하고 제안했던 내용과 우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첨’으로 ‘협의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있음.



사진45. 지구지정 항의 기자회견 (2020. 6. 5)

14) 부천대장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응활동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이 4월 29일(목)~5월 31일(월), 주민설명회가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로 공지되어 120명의 시민이 주민의견 제출하고, 주민공청회 요구

‘부천대장 신도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가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4시, S컨벤션에서 개최되어 최진우(정책위원장), 이명옥(시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12) 대장들녘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영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여 LH, 부천시,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장들녘협의체’ 구성,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에서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강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생태보전지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 결정”하여 최진우 정책위원장, 김기현, 박미현 대표 참여, 2020년 1월 19일 ‘대장들녘 양서류 보전방안’을 서울시립대에서 발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

13) ‘대장들녘 양서류 등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협의

LH가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팀과 ‘대장들녘 양서류 등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을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과 협의(2020년 6월 5일, 2시, 7시 두 차례)

2021년 3월 31일(수) 대장들녘지키기 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연구팀이 ‘대장들녘 생태보전 방안(안)’ 발표 후 협의

6. 대장들넉지키기 글 모음





김기현 (부천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

01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vs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 활동

-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계획은 약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2004년 11월 25일 국토부 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김포공항 골프장을 개발기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 골프장 건설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0년 11월~12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27홀 규모 - 서울 18홀, 부천 9홀)하였다.
- ◎ 하지만 당초 골프장 건설목적이 “환경훼손이 심각한 국유지를 녹지조성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환경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농지를 논리고,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자 김포공항 습지 일대 30만평은 부천지역에서 드물게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였다.
- ◎ 지역사회에 ‘골프장 건설계획’과 ‘김포공항습지의 생물다양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이후였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진행되는데 제대로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으며 “수도권에서 드문 생물다양성 지역”이라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지역에도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김포공항습지 골프장건설 반대 부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참가단체 -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청미래,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사랑의교회,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한국노총부천지부, 부천녹색당, 13개)
- ◎ 서울과 부천의 환경.시민단체들은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이 김포공항 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2014년 일 여년에 걸친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통해 30만 평 김포공항습지에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철새들이 와서 머물다가고,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금개구리를 포함한 12종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종 거미가 발견되는 등 김포공항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수도권 최대의 습지, 생태계의 보고인 것을 확인하였다.
- ◎ 한강환경유역청의 조사에서도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김포공항 골프장 계획부지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의 결과가 반영되어, 습지로서의 가치와 잠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한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온전한 습지의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하며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온전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가에 의한 대책 마련
-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연구팀 운영
-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
- 법적보호종 양서류 포획·이주 계획 및 실행

◎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 부지매입 용도변경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에 납부 후 공사를 시행토록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에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02

현재 상황과 이후 활동 계획

◎ 부천대책위는 향후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습지 보전 및 법적보호종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습지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 법적보호종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
- 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약 사용에 관한 사항
- 골프장 경계와 인접지역에 관한 관리 계획
- 사업지 인근 겨울철새 채식지 확보방안
- 장기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 그 외에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사업자 측과 '생태공원 조성부지'(부천지역 약 5,000평)와 '원형보전습지'(1, 2, 3습지는 대책위 요구반영)에 대한 구두합의가 된 상태이고, 멸종위기양서류(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맹꽂이) 포획·이주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골프장이 운영되더라도 건강한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

◎ 하지만 작년부턴 부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대장동 산업공단' 조성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더니 지난 10월 12일(수), 부천시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장동 60만평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고, '대장동 산업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부천은 문화도시이고,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다. 하지만 부천의 인구밀도는 전국 2위로 서울 다음이고, 산림은 18.9%에 불과해 수원(21.9%), 성남(50.7%), 안양(51.6%) 등 주변도시에 비해 무척 적다. 부천의 1인당 공원면적(m²) 역시 8.38m²로 경기도 1인당 공원면적 21.64m², 전국 1인당 공원면적 26.4m²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불투수면적을 조사 결과 전 국토의 7.9%가 불투수 면적인데 부천시는 무려 61.7%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나마 남은 녹지를 잘 보전·관리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현대적인 기술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녹지가 절대 부족한 부천에서 대장동 산업공단 60만평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히 검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장들녘이 생태계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분지형 도시인 부천에서 한강의 바람이 흘러오는 '바람 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대규모 산업공단'을 조성할 경우 자칫하면 부천지역 전체, 특히 중·상동지역에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

◎ 부천의 시민단체들은 「대장들녘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 구성 목적

- 대장동 60만평 산업단지 타당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응하면서 시민참여로 부천의 미래, 대장들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 대장들녘 논습지의 다양한 생태적·문화적·환경적 가치 조사 및 발굴
- 도시민에게 대장들녘 생태문화적 가치 인식증진 및 프로그램 추진
-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 활동의 구심점 역할
- 반대투쟁을 넘어서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네트워크 기반 확립

(2) 조사 범위

- 향토사(굴포천, 대부둑, 부천평야, 대장동, 주민 생활사 등)
- 농업공동체문화(전통농업, 도시농업, 생명사상, 농업체험 등)
- 생물다양성(금개구리, 맹꽁이, 제비, 물총새, 참게,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 도시환경영향(차고 신선한 바람길, 도시열섬 저감, 대기오염 저감 등)
- 도시/마을만들기(시민인식도, 대장동주민조사, 대장동마을만들기 등)
- ※ 콘텐츠 발굴 자료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포럼 구성
(정기적 발표 및 토론, 시민참여 개방, 지역언론 원고투고 등)

(3) 대장들녘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개

- 도시민 대장들녘 방문 프로그램 추진(경관 및 생물관찰, 농업참여, 향토사 등)
- 친환경 유기농 농사(주민과 협약), 생태체험 프로그램(유아, 초등, 학부모)
- 대장들녘 축제 추진(제비, 참게, 두루미 등)
- 논습지/농수로¹⁾ 바이오블리츠 추진
- 원탁회의 등 시민참여 통한 미래비전 아이디어 구상 및 실행사업 논의

1)

바이오블리츠는 생명을 뜻하는 'bio'와 순식간에 내리치는 번개를 의미하는 'blitz'를 조합한 합성어이다. 즉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내어 이를 데이터화하는 것으로서,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활동이다.

최진우 박사 (환경생태연구재단)

들어가며

김포공항습지를 포함하는 대장들녘의 논습지에는 양서류, 야생조류, 수서곤충을 비롯한 많은 논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논습지는 마을주민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조성·관리하는 인공습지 시스템이다.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에는 경지규모, 경지형태, 물 공급 및 관리, 제초제 및 농약 사용, 가축 및 기계화농사, 농법, 토지소유, 농사주체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들녘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논농사 방식과 논생물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여 논습지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01 구한말

현재 대장들녘은 김정호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주화곶(注火串)으로 표기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오곡리, 오금리, 오쇠리와 더불어 주화곶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은 조선 후기 도평도호부에서 한양까지 큰길로 연결되어 계양 활어장으로 장보러 가는 장사꾼들, 부평향교로 학문을 배우러 가던 선비, 소달구지 및 농사꾼 등이 이용하는 ‘큰 재가 있는 마을’로 해석되고 있다(대장동주민협의회, 2015). 1896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당시 부천은 경기도 부평군이 되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1930년대생으로 일제시대 이전 대장들녘의 풍경, 농사방식, 생물에 대한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전해들은 얘기를 통해 추정해보면, 과거에는 마을 구릉지에서 소규모로 밭농사, 천수답 농사를 했고, 굴포천 주변 넓은 대장들녘은 개흙과 갈대습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밀물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굴포천까지 들어오는 등 한강하구 범람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개흙과 갈대습지에 서식하는 생물, 주민들의 어업활동 및 갯벌생물 채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옛날에는 구릉지에서 소규모의 농사가 전부였고,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전OO 님)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부평까지 영향을 주었다.” (서형진 님)

“큰 연못(뚝방 추정)을 중심으로 꼬불탕한 작은 논들이 옹기종기 있는 풍경이었고, 현재 직선으로 구획 정리된 논이 짝 펼쳐져 있는 곳은 다 갈대밭이고 개흙인 황량한 곳이었다.”(한사열 님)

* 나무다리 위에 시커먼 개펄 흙을 깔았는데, 개펄 흙이 마르면 까맣다고 하여 까먹다리라 불리움, 조선시대에는 흙다리로 불리움 (까먹다리 해설판 내용)



출처 : 김정호 대동여지도(1861년)

02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부천군으로 명명되었다가, 1917년 간행된 「신구대조선전도부군면리동 명칭일람」에 대장동은 ‘부평군 주화곶면 대장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9년 고지도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 대장동, 오쇠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주변 서울시 오곡동, 공항동 일대는 해발고가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릉지 전체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물길 주변 계곡지형에는 천수답 형태의 논농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릉지 계곡물을 둠벙에 저장하고 소하천의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천이 있던 굴포천 주변 대장들녘을 포함하여 전체 범람원지역이 논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간척이 이루어져 쌀 생산지인 부평, 김포평야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갯벌과 갈대습지가 주를 이루던 한강하구 굴포천 범람원 생태계가 쌀 생산기반인 논습지 생태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은 개흙과 상습적인 침수, 물 공급과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쌀 생산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강 범람원 생태기반의 생물종이 공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1919년 고지도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의 일환으로 1925년 한강에서 물을 들여오는 대부둑(동부간선수로)을 건설하고 농지를 600평 단위로 정리하고 5개의 방수문을 설치하였다. 대장들녘에 범람을 방지하고 원활한 물공급을 통해 대규모의 효율적인 논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경지정리 논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은 대부분 소작농이었고, 일제의 수탈이 심해 궁핍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궁핍한 생계는 결국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개구리, 미꾸라지 등 논생물을 잡아먹거나 벼짚 및 벼이삭을 남겨주지 못해 야생생물의 서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경지정리와 대부둑 조성을 통한 간척지 농사가 진행되었어도, 구릉지의 천수답 농사가 훨씬 생산성이 높고 땅값도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1939년 일본군 비행장(현재 김포공항)이 건설되면서 구릉지 산림과 천수답 논이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출처: 1932년 고지도

“갈대밭이고 개흙이던 곳을 일제 때 대부둑을 건설하면서 경지를 정리하여 대규모 벼농사가 가능하였다.”(한사열 님)

“일본인은 1구역당 600평 규모로 농지를 정리하고 동부간선수로와 농수로 사이에 다섯 개의 방수문을 설치하여 홍수때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박휘양 님)

“논 사방에 둥근 말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줄을 친 후 수확한 벼를 쪽 늘어놓고 이삭 하나하나까지 세어서 공출해 갔다.”(김두환 님)

“말을 탄 일본순사들이 활주로에서 가깝고 수심이 깊은 북망산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였다.”(박휘양 님)

03

광복이후 ~1970년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이 관리하던 대장들녘 농지가 주민들에게 불하되었다. 광복이후 1970년까지는 현재 생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년기, 청소년기, 젊은 청년기를 보낸 시기로 대가족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협동력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던 시기이다. 1957년 대장분교가 개교하여 1960년 대장초등학교로 승격되는 등 어린 학생들이 많았고, 오정동 주변의 학생들이 논둑길을 긴 행렬을 이루어 등교할 만큼 대장동이 인근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출처 : 1969년 지도

대장동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넓은 농경지로 인해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고프지 않았고 부농이었다고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증언에서 가장 많은 논생물을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로 개구리, 미꾸라지, 메뚜기 등을 잡아먹은 경험이 주를 이루지만 금개구리, 맹꽁이, 말조개, 물뱀, 거머리, 드렁허리, 제비, 황새, 뜰부기, 부엉이, 매 등 다양한 생물에 대한 정서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논생물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잡혀 먹기도 했지만, 제초제와 농약으로 부터의 위협이 없어 가장 안정적으로 논을 서식지로 이용했던 시기이다. 마을주민과 협동으로 소와 함께 논을 관리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생물의 안정적인 서식을 지원하는 공생관계이었다. 아이들은 논과 논둑에서 놀면서 개구리, 미꾸라지, 메뚜기, 뜰부기 등 논생물과 친구가 되었던 생태적 감수성을 지닐 수 있었다.

“개구리는 녹색을 띠는 것과 검은 색을 띠는 것들이 있었다. 금색 선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황금개구리라 부르는 것 같더라.”(김두환 님)

“개구리 뒷다리 많이 구워 먹었고, 몸통은 따로 떼어 병아리나 닭에게 먹이기도 했다. 물뱀이 흔해 모내기철 모를 찢 때 모에 물뱀이 붙어 나오기도 했다.”(박휘양 님)

“농약을 많이 치기 전에는 개구리, 맹꽁이, 거머리, 드렁허리, 곤충들이 많았고, 황새, 뜰부기도 있었고, 제비가 많아서 날아다니며 곤충들을 잡아먹었다.”(한사열 님)

“미꾸라지가 바가지로 한번 뜨면 가득 찰 정도로 많아 돼지에게 먹이는 사람도 있었다.”(박휘양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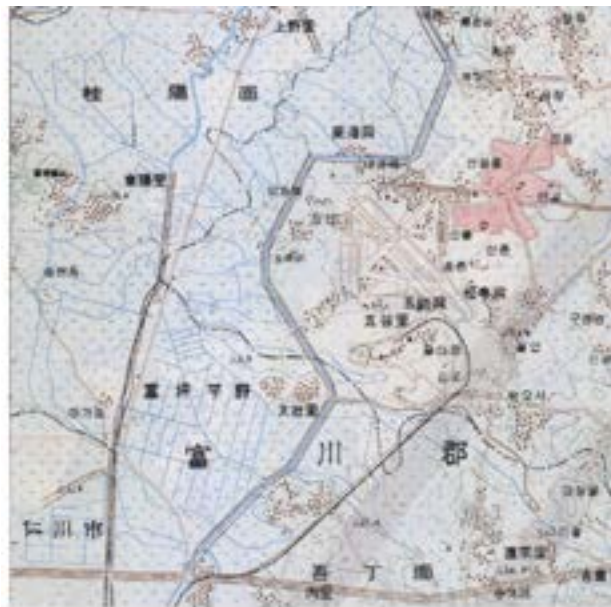
“합박조개 (말조개 추정)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전OO 님)

04 제초제 및 농기계 도입기 (1970년대~1980년)

1970년대는 대장동 농촌마을의 근대화와 제초제 및 농기계의 도입으로 논습지의 생태적 안정성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대장동은 1972년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농촌근대화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 통일벼 시범단지로서 운영되는 등 수도권의 중요한 농촌마을이었다. 그 시기에 대장초등학교는 1975년 행정구역이 김포군에서 부천시로 편입되던 그 해에는 27학급 1,358명의 학생이 재학 할 정도로 제법 규모가 큰 학교로 성장하였다(대장동주민협의회, 2015).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가의 지붕개량 및 담장이 개수되고, 수로의 정비 및 1단위당 1,200평 규모로 농지가 재정리 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논농사를 위해 제초제 사용과 동력경운기 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주민 구술기록에 따르면 제초제를 뿌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개구리, 메뚜기, 미꾸라지 등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제초제 사용은 양서류를 비롯한 논생물의 서식과 먹이사슬에 큰 위협을 주기 시작했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논에서 개구리를 비롯한 미꾸라지, 드렁허리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출처 : 1969년 지도

“제초제를 뿌리기 시작한 이후 개구리, 메뚜기, 미꾸라지 등이 급속도로 감소하였다.”(전OO 님)

“경운기로 논갈이 할 때 벼 뿌리 근처 구멍에서 미꾸라지를 볼 수 있었고, 로타리 칠 때 물뱀보다 작은 드렁허리를 볼 수 있었다.”(서형진 님)

5. 농작업의 기계화 확대 (1980년대 ~ 현재)

1980년부터 추진된 공업 수출산업과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인구이전,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대되었다. 대장들녘 에서도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계 사용이 확대되었고,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대장들녘에는 특히 매년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2차례 실시되고 있다.



출처 : 2002년 지도

주민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부터 논농사가 기계화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개구리, 메뚜기, 미꾸라지 등 논생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주민들이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 논에서 잘 산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장들녘에 인접한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증언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보다 개구리의 종류와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참개구리와 청개구리로 대표되는 5~6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70년대 후반부터 논농사가 기계화되고 80년대에는 완전히 농약 투성이 농사가 되어 메뚜기, 개구리, 미꾸라지, 장어, 게가 사라졌다. 기계로 밀식재배하게 되니 면역성이 약해지고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이는 논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김두환 님)

“개구리가 이제 논에는 잘 산란하지 않는다.”(서형진 님)

대장들녘 가까이에 새로 이주한 도시민들에게는 참개구리 울음소리가 낯설고 생소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오랫동안 농촌마을에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고 사라진 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개구리의 종류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개구리 소리에 반응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는 최근 마을주민들이 직접 논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에 위탁하고 있어 논과 논생물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이 멀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매년 모내기 전·후 시기에 대장동 논에서 들려오는 참개구리 울음소리에 아파트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도 제기하지만, 봄날 개구리의 합창소리로 생각하여 좋아하는 편이다.”(전정옥 청미래 활동가)

“지금 대장분교는 전교생이 12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고, 동문체육대회나 농협 농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용된다.”(박휘양 님)

기계화농이 도입된 이후 대장들녘에는 과거와 달리 낙곡률이 높아져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천마리의 큰기러기와 20~3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낙곡을 먹기 위해 대장들녘을 이용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겨울철 내내 마곡지구의 흙이 대장동으로 반입되어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겨울철새의 먹이터가 위협받고 있다.

“겨울에 낙곡과 벼짚이 생겨 기러기, 재두루미가 이용하게 되었다.”(서형진 님)

“예전엔 먹을 것이 귀하니 이삭 하나까지 다 주워서 챙겼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기러기들이 떨어진 이삭을 먹을 수 있어 논에 오는 것 같다.”(김두환 님)

“항공방제로 감소된 메뚜기가 요즘 많아지고 있다.”(이복순 님)

부천시 대장동 321ha의 벼 재배면적 중 25ha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행 논보다 풀베기를 자주해야 하고 화학비료대신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하지만, 수매단가가 15,000원(18,000원/80kg) 높으며, 수확한 쌀은 학교 급식으로 공급된다고 한다. 친환경단지 5개소 중 벼농사 체험장 3곳이 운영되고 농협에서 화장실 설치, 하우스 시설, 잠자리채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친환경농사 논도 토양 산성화를 막기 위해 객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한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논에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메뚜기, 미꾸라지, 드렁허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지역농부의 인식에서 확인된 것이 주요할 만한 결과이었다. 아래는 박찬홍 농부의 구술내용이다.

“2014년에 메뚜기가 많아서 아침이슬에 날 수 없는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먹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금은 객토작업으로 논둑이 없어져 메뚜기가 올해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박찬홍 님)

“논 모내기 준비되는 5월 초가 되면 친환경 논을 중심으로 밤에 참개구리 합창이 들린다. 시끄러워 잠을 설칠 정도다. 모내기 체험 때는 청개구리가 많아 아이들이 잡기도 한다.”(박찬홍 님)

“가끔 논을 팔 때는 미꾸라지가 보이며, 논둑에 구멍을 뚫는 드렁허리를 본적이 있다.”(박찬홍 농부)

06

대부둑의 생물다양성

1925년 일제시대 조성된 대부둑은 대장들녘 논에 물을 공급하는 농수로 시스템이다. 4월 중순경 한강에서 물을 대부둑으로 펌핑하여 논에 물을 대었고, 추수후 10월 중순경 물을 빼는 시스템이다. 주민 구술에 의하면 한강에서 들어온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 등이 대부둑에 주로 서식하고 예전부터 참게도 많이 산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낚시터로 유명하며 지금은 낚시만 허용되고 투망은 금지되었다.

대부둑은 물고기가 많아 백로류, 왜가리가 많고 과거에는 물총새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강하구의 고라니 및 갈매기도 대부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다. 대장들녘의 농수로와 연결되고 김포공항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둌땡 및 습지까지 연결되어 있어 많은 물고기가 김포공항 습지로 올라와 산란지로 이용하고 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 대부둑 물을 끌어들여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면, 그동안 말라있던 대장들녘의 반듯반듯한 논이 습지가 되고 참개구리 및 청개구리의 산란이 시작된다. 즉 논농사를 짓기 위해 인위적으로 한강의 물을 끌어 들이고 관리하는 방식이 양서류의 산란, 이동, 동면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 순환하는 논습지 시스템의 주요 인프라로 볼 수 있다.

“한강에서 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 치어가 같이 유입되어 대부둑에서 자라게 되었고, 과거부터 메기, 붕어, 빠가사리, 미꾸라지, 뱀장어, 참게가 많이 잡혔다.”(전OO 님)

“물고기 산란철인 5월 대부둑 주변에 낚시꾼들이 많다.”(박찬홍 님)

“지금은 붕어, 잉어, 배스, 참게, 빠가사리, 메기, 버들붕어가 많고, 작년 여름에 뱀장어를 잡은 적이 있다.”(서형진 님)

“대부둑에 물고기가 많아 백로를 많이 볼 수 있다.”(전OO 님)

“물총새가 많았고 정말 이뻐다.”(김두환 님)

“밤에 참게잡이를 위해 전통방법을 사용한다. 나무를 모아 엮어 발을 만든뒤 수로를 가로질러 막아 놓고, 그 발 앞에 하얀 사기조각 등을 얹어 놓고 밤에 수로옆 초막에 앉아 기다려 참게가 지나가면 잡았다. 먹이는 생고등어 잘라 쓰거나 오징어를 미끼로 썼다.”(박찬홍 님)

“아라뱀길 생긴 뒤 물길 따라 고라니도 넘어오고, 갈매기도 보인다.”(서형진 님)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대장들녘 논습지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물리적 토대는 구릉지 천수답 농사에서 한강과 굴포천 범람원을 간척하고 대부둑을 조성하여 경지정리형 대규모 논경작지로 변모한 것이다. 이는 지형 및 토양 조건, 물 공급 및 관리방식, 경지의 규모 및 형태가 생물종 및 서식기반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논농사를 기반으로 마을주민의 농지소유 및 생계해결 등 사회경제적 궁핍 수준이 논생물의 채취양상과 낙곡 채취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사방식에 있어서 1970년대 제초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양서류 및 논생물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대되고 농약사용이 급증한 이후 개구리, 미꾸라지, 메뚜기 등 논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장동에 거주하면서 더 이상 논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은 개구리 서식과 울음소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은 여전히 개구리의 생태를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친근함을 알 수 있었고, 대장동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주민이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보다 개구리의 삶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장동 논습지 시스템에서 개구리를 비롯한 논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초제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에 가까운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수단으로서 마을주민에 의해 논농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고령화되었고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서 농지전용을 통한 개발이익에 관심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근 민간단체와 도시민에 의한 친환경 임대농업 및 농사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개구리 및 논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천마리가 넘는 제비와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

최진우 박사 (환경생태연구재단)

지난 9월 25일 일요일 아침 8시, 대장동 마을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대장동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 아래편에 위치한 전깃줄에 수백마리의 제비무리가 줄을 지어 앉아 있었다. 지난 5월부터 대장동 마을 제비모니터링을 해온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을에서 조사했을 때 50~60마리 정도만 관찰되었는데, 그 정도의 숫자도 서울 가까이 있는 수도권 도시농촌마을로서 제비가 찾아오는 곳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수많은 제비들이 펼쳐는 군무를 보니 가슴이 설레이고 놀라운 느낌이 들었다. 정확하게 마리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쌍안경을 꺼내어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전깃줄에 600마리, 물이 빠진 데부둑 진흙위로 낮게 날고 있는 100마리, 그리고 마을 주택 상공에 또 300마리, 합해서 대략 1,000마리가 넘어 보였다. 부천에 천마리가 넘는 제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

지금 제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 중국 황하강 이남지역으로 불리우는 강남(江南)으로 가기 위해 무리들이 모여 비행연습 준비를 하고 있다. 이시기에 제비 무리를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지런해야 한다. 오전 8시에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9시가 되기 전에 제비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장들녘의 논습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제비에게는 등지를 만들 진흙과 지푸라기, 그리고 새끼에게 먹일 잠자리, 메뚜기 등 많은 곤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장동 마을주민이 제비를 반기는 마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비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마을주택 안방처마에 등지를 지어 새끼를 키우며, 사람들은 그런 제비를 영물로 인식하고 길조(吉鳥)로 받아들여 제비를 집안 식구처럼 여겨왔다.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 등지에서 떨어지는 배설물 처리 때문에 제비집을 부수기 마련이다. 네 번째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전래동화 속의 제비를 현재 부천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정서적 설레임과 생태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장동에 도래하는 제비의 먹이터인 논습지를 유지하고, 제비 등지를 반겨주는 마을주민의 마음을 붙들며 매기 위해서는 도시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과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청미래와 환경생태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올 6월부터 제1기 학생제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1회씩 모인 학생들은 대장동 집집마다 방문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비등지와 주민조사를 진행한다. 제비가 집에 등지를 만드는 것을 반가워하시나요? 제비가 몇 마리 사나요? 제비와 관련된 들려

주고 싶은 추억이 있나요? 제비를 위해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가 있나요? 작년에 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어린 학생들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어보는 상황을 너무 반가워하며 다정하게 이야기 해주신다.

대장들녘 40만평이 산업단지로 개발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많은 도시민(?)과 더불어 대장동 마을주민들까지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논습지가 사라지게 되면 제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제비가 함께 했던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도 동화책에서나 보게 될 것이다.

천마리가 넘는 제비와 대장들녘 생명에 대한 아이들과 청소년의 순수한 관심과 마음을 확산하는 길이 결국에 어른들의 개발욕구에 대한 욕심을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땅 30만평 김포공항습지와 120만평 대장동 평야의 운명

최진우 박사 (환경생태연구재단)

지난 2년간 우리는 김포공항 골프장사업을 두고 '소수를 위한 골프장이냐, 시민 다수를 위한 생태습지공원이냐'의 쟁점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조사단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안보고서 작성,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여, 국회 및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김포공항습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제출되었고 현재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그나마 우리의 소중한 활동으로 인해 습지로서의 사실과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 습지공간을 최대한 원형 보존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되었다.

골프장 개발사업을 저지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낙담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으로 원형 보존되는 습지 4개소를 생물서식처로서 온전하게 어떻게 보존하고, 주변 농경지와 연계하여 습지생태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다. 시민조사단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골프장 공사시와 사업운영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생태적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상지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수많은 양서류의 포획·이주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다. 골프장 개발을 전제로 하는 조치라서 달갑지는 않지만, 향후 논습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120만평의 대장동 평야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구심점과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근 대장동 평야는 재두루미 월동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II급)가 지난해 11월 16일 부천시 대장동 평야에서 4마리가 발견된 이후 12월 12일 39마리가 집단으로 발견되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전 세계에 7,000개체 정도 서식하는 재두루미는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한국에서는 강원 철원평야, 경기 한강, 임진강하구, 경남 주남저수지가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이 2014년 12월에 발표한 '김포공항 골프장 계획부지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평야 일대에서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와 흑두루미 1마리, 2013년 재두루미 32마리, 2014년 27마리가 발견되었다.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어려워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부천 대장동 평야까지 날아오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봄까지 대장동 농경지에 재두루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규모 성토작업이 벌어져 화물차와 불도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필자에게는 재두루미가 외부 위협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2015년도에 다시 대장동을 찾아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다행히 11월 중순부터 대장동 평야에 재두루미가 발견되고, 급기야 12월 12일에는 39마리나 발견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토작업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에 재두루미가 발견된 곳은 작년 초 부천시와 대장동 평야 일대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검토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장동 재두루미 월동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12월 16일 부천YMCA, 청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현장답사를 통해 재두루미 4마리를 발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재두루미 월동지의 중요성, 대규모 성토작업의 즉각적인 중단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취소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청미래에서 진행한 재두루미 모니터링에 의하면 12월 17일 24마리, 22일 9마리, 23일 9마리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성토작업은 더욱 확대되어 가는 상태이었다.

윤병국 의원과 필자가 제기하여 지난 크리스마스 아침에 9명이 모여 볍씨 80kg 먹이주기를 했을 때 재두루미 4마리를 발견했고, 다음날 26일 청미래에서 재두루미 7마리가 농경지에 내려앉지 못하고 비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 안타깝게도 대장동 평야에서 재두루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2월 28일 김포 흥도평야에 재두루미 4마리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과거 김포 흥도평야의 개발로 쫓겨 온 재두루미가 대장동에서 먹이를 찾다가 덤프트럭과 불도저에 위협을 느껴 다시 아파트로 둘러싸인 흥도평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크리스마스 아침 재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이후 우리민족의 영물인 재두루미를 품고 있는 겨울철 대장동 평야의 경관은 사라졌다. 물론 우리는 먹이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덤프트럭과 불도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재두루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고자, 먹이라도 풍족하게 공급하고자,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인해 재두루미 서식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였다. 그러나 재두루미를 위협하는 행위는 우리의 느긋한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재두루미가 돌아오지 않는 대장동 평야를 맞이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장동 지역주민과 만나 논성토 작업의 양과 시기를 조절하고, 부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재두루미 월동지 보호를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의 땅 대장동 평야의 마지막 기회는 올 2월 일본에서 돌아오는 재두루미 무리가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지, 내년 11월 다시 돌아올 지도 모르는 재두루미가 안정적으로 월동을 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그 기회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2)
2017년 1월 부천YMCA '광장에 실린 글

01

열악한 부천의 도시환경과
생태 보고(寶庫) '대장들녘'3)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으로,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집중호우 시에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이 저지대로 몰려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천의 도시면적은 겨우 53.44km² 여기에 88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에서 발표한(2013년)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결과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³⁾이 61.7%로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이 54.4%이니 부천은 환경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땅이 건강하지 못한 도시라는 뜻이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m²로 최하위이다. (2014년 산림청 통계, 수원시 4.2m², 고양시 4.42m², 성남시 6.11m², 용인시 5.75m²로, 안산시 5.77m²)

이렇게 열악한 부천의 도시환경에서 대장들녘은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법정보호종 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 등 총 32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조사되었다.



<그림 1>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노란색 실선이 골프장 예정부지이다. 왼쪽 9홀이 부천, 오른쪽 18홀이 서울 강서구이다.

2015년 12월 17일(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한 '대장들녘 생태조사'에서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마리, 큰 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2,240마리, 쇠기러기 212마리 등 야생조류 28종이 조사되었으며 고라니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골프장 건설예정지 습지에는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약 100~120마리,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약 1,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02

1라운드, 김포공항 골프장 vs 김포공항습지 지키기

김포공항 골프장은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2004년 11월 25일 국토부 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골프장 개발이 결정되었으며 2008년 4월 1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0년 11월~12월 경기도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포공항 골프장 대상부지 약 30만평은 당초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국가에서 매수한 땅(주로 농지)이었으나 농지를 늘리고,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자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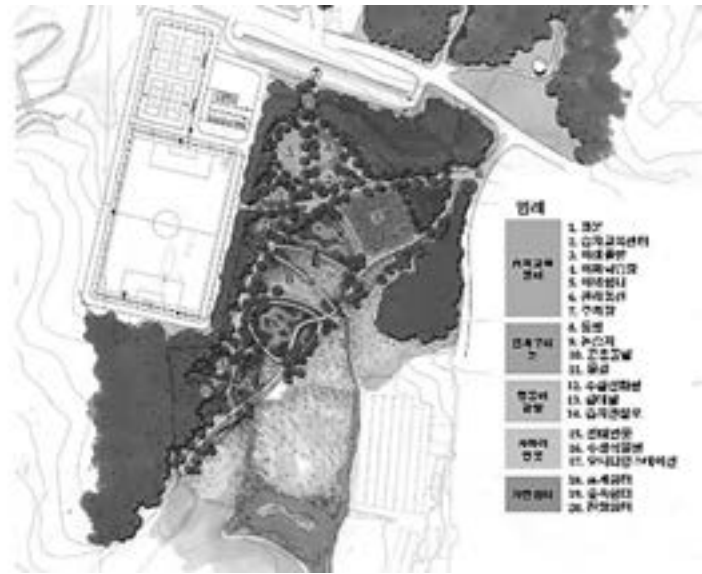
2014년부터 부천지역의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어 토론회,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015년에는 일년에 걸친 생태조사 활동을 정리하여 '김포공항 골프장 계획부지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 주체인 한국공항공사, 사업자(in 서울 27 골프클럽)는 "김포공항습지를 습지로 인정할 수 없고, 생태적 가치도 높지 않다."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인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시민조사단의 생태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습지로서의 가치와 잠재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결과 '한강환경유역청'에서는 "온전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가에 의한 대책 마련"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연구팀 운영" "법정보호종 양서류 포획·이주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문서로 명기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게 된다.

그 후 2015년 12월 5일, 시민단체와 사업자가 함께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서울시립대 연구팀이 작성한 생태공원 조성계획(안)이 사업자에게 제출되어 있다. 또한 향후 5년간(공사시 2년, 운영시 3년)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조사' 부분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골프장 건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원형보전 습지 3곳, 대체습지 1곳을 지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의 성과이다.



<그림 2> 생태공원(안)처럼 부천시 고강동에 약 5천평 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생태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성 후에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생태공원과 (하단 아래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부분 역시 습지이나 사유지이다. 부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확대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03

2라운드, 대장동 산업단지 vs 대장들녘 지키기

120만평 규모의 대장들녘에 약 60만평 규모의 ‘대장동 산업단지’ 건설은 2015년 5월경 부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 12일에는 부천시가 나서서 대장들녘 보전용지 약 60만평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더니 2016년 12월 21일, 김만수 시장은 시민혈세 3천 5백만원을 쓰면서 ‘대장동 산업단지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관련 공무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민간인들과 함께 4박 6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그렇다면 ‘대장동 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림 3> 위성사진으로 본 부천(구글지도) - 부천.부평.계양은 (오른쪽부터) 도당산 -원미산-성주산-철마산-천마산-계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위쪽의 열려있는 공간이 대장들녘으로 한강의 찬 바람이 이곳을 통해 도심(都心)으로 유입된다.

4)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있는 도심은 녹지가 많은 인근 교외 지역에 비해 태양열로 쉽게 달궈지며 도시 내에는 공장,주택,자동차 등이 많아 연료를 연소시킬 때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2~5°C 가량 높은 온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온이 같은 지점을 등온선으로 연결 시켜보면 높아진 도시 내 기온 분포도가 섬의 등고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열섬(heat island)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장들녘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부천의 도심(都心)으로 오는 바람 길이 막혀 (분지형 도시인 부천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가뭄이나 심각한 대기질이 더 악화되고, 미세먼지도 증가하여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경성질환이 악화되고, 열섬현상⁴⁾도 강화되어 도시 폭염에 더 시달린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대장들녘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대장들녘의 생태,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경험하면서 “부천의 미래를 위해 대장들녘을 어떻게 할지” 토론하고, 숙의하자는 것이다.

부천의 미래는 부천시장이거나 소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시민이 주인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 부천! 그곳에 남겨진 생명의 땅 대장들녘 120만평!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법정보호종만 32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장들녘의 생태적 가치를 가꾸고, 발전시켜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60만평 산업단지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선택이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다.

윤병국 (부천시의원)

5)

2017년 5월 27일, 대장들녘 가족농부 시농제

유세차 정유년 5월 스무 이렛날, 음력 5월 초이틀
지구별 부천의 착한 시민들이 대장들녘 금개구리는 모내기를 맞아 천지신명께 고하나다.

오늘 소찬을 마련하여 천지신명께 축원하는 저희는 부천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여기서 나고 자란 것은 아니지만 이곳 부천에서 정 붙이며 이웃과 오손도손 살아가려는 어여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전 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무릇 천하의 근본은 농부라 하셨으니 농사일이 장난이나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희가 어찌 모르겠나이까. 비록 서투르고 어설피지만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땅의 정직함을 이해하며 진솔한 농부의 마음을 닮아보고자 나선 길이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어리석은 인간들은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고 금전의 노예가 되어 생명과 같은 땅을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보다는 눈 앞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대장들녘이 지금 그러하나이다.

우리의 자식에 자식까지 살아갈 이 땅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개발의 포크레인 삽날에 파 문힐 문 생명을 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와서 땅과 하늘의 정기를 받아 자라나며, 인간도 그 속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논두렁의 들풀, 물 위를 맴도는 소금쟁이, 물 속의 개구리, 우렁이, 미꾸라지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 선선한 바람, 넘실대는 벼포기, 짹지어 나는 잠자리, 저저귀는 참새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 따사로운 햇볕, 일렁이는 황금들판, 아름다운 저녁 놀, 쇠기러기의 군무, 재두루미의 우아함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 서투른 농부들이 농사를 시작합니다. 옛날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던 토종 벼씨들을 키우려 합니다. 배운 적 없지만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해

왔던 방법대로 손으로 모를 심고, 비료나 농약없이 자연 그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서투른 손길로 모판을 만들었으나 천지신명의 가호로 이렇게 튼튼한 모로 키워 주셨음을 저희가 아옵니다. 이 농사가 끝나는 가을날까지 함께 하시어 적당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병해충을 막아주시어 이 모들이 쑥쑥 자라나고, 튼실한 알곡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벼포기와 함께 우리의 생명사랑, 가족사랑, 이웃사랑, 부친사랑의 마음도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을날 우리의 수고로 맺어진 알곡으로 밥을 지어 먹고 술을 빚고 떡을 찜어 다시 감사의 축원을 올리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게 하옵소서.

백배, 천배의 수확보다는 생명을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땅의 소중함을 몸으로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이 논과 대지에 깃들어 사는 작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이웃들을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차린 것은 적사오나 저희의 간절한 마음은 무궁무진하오니, 저희의 뜻을 헤아리시어 이 농사가 끝나는 그 날까지 천지신명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단오를 사흘 앞 둔 날

부친의 금개구리 논 가족농부 일동 상향

최진우 (대장들넉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

6)

본 원고는 부천시 대장들넉에서 오랫동안 농부로 살아온 어르신들의 구술에 기반하여 작성된 스토리 콘텐츠 창작물입니다.

어린 참게와 늙은 농부의 슬픔

굴포천 주변의 넓은 대장들넉 논은 한강의 물을 끌어들이어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봄에 한강과 연결된 물길이 열리면 어린 참게들이 논에 들어와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한강하구로 떠납니다. 인간이 만들어준 농수로와 논은 참게에게 위험하지만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요즘 참게의 사는 형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농약과 제초제의 사용으로 논에 개구리와 수서생물이 사라져 먹이가 충분하지 않고, 수로에 독방이 정비되고 버드나무와 수초가 제거되어 숨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형제와 친구들이 줄었습니다. 참게에게는 야간에 불을 밝히는 차량과 자신들을 쫓아가는 낚시꾼만 많아 보이고 농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늙은 농부는 오늘도 논을 그저 바라다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크게 지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뒷바라지를 했던 논이었고, 한때는 '부농'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논이 외지인에게 팔렸고, 얼마 안 되는 자기 논도 영농조합에서 기계로 농사를 대신 짓고 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는 예전에 학생이 1,300명이 넘어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마을에 넘쳐났는데, 이제는 10명도 남지 않았고 화물차 지나가는 소리와 먼지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웠던 시절, 늙은 농부가 그리워하는 것은 단연 참게잡이와 간장게장입니다. 어린 참게와 늙은 농부는 그 시절을 돌이켜 봅니다.

겨울 한강하구, 어미품에서 태어난 조애아의 성장

매서운 겨울 서해바다와 가까운 한강하구에서 한 달간 알을 품은 어미 참게가 드디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어미에서 수십만 마리의 유생이 부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십여 마리 정도만이 살아남아 바닷물 냄새가 짙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농부는 밥맛이 즐겁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하여 얻은 쌀밥에 같이 먹는 간장게장이 일품입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참게의 맛과 향기에 취해 밥 한 그릇을 푹 푹 비웁니다. 가을건이로 바쁜 시기 농수로에 게막을 설치하여 밤을 새워 참게를 잡아들여 간장게장으로 담가 두 달 정도 숙성시킨 별미입니다. 농부는 참게가 주는 넉넉함과 즐거움에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봄 어린 참게무리가 한강하구 상류로 이동

참게 유생은 바닷물에 적응하여 살다가 한 달이 지나면 어린 참게로 변신합니다. 어린 참게들은 무리를 지어 자신들이 태어난 바다를 떠나는 출정식을 합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자란 민물로 떠나는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강한 자외선과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밤에 이동을 합니다. 어린 참게들은 본능적으로 강물냄새를 맡으며 한강하구 기수역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빛아래 땅의 실루엣을 느끼고, 눈이 멎을 정도로 밝은 김포의 포구와 고깃배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무사히 지나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시기에는 가장 험난한 마지막 관문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한강하구 수변에 도착한 어린 참게들은 여독을 풀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갯벌매기와 도요새 무리의 공격으로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땅을 파서 숨어보지만 부리가 긴 마도요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겨울동안 맛있게 먹었던 간장게장 양식이 떨어진 농부는 참게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워합니다.

어린 참게무리의 고향 앞으로 대열

한강하구는 두 개의 강물 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강입니다. 어린 참게무리들은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라난 강물의 냄새를 맡고 이동합니다. 예로부터 파주와 연천지역의 임진강으로 갔던 참게들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이유로 옥돌참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때 군사적 접경지역으로 참게가 살기 좋았지만, 지금은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이 이동했던 무리 중에서 절반이 임진강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한강으로 이동합니다. 어린 참게들은 본능적으로 골고루 흩어져야 우리 모두가 잘 살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들어온 어린 참게 군단은 김포와 고양의 하천과 농수로를 따라 가는 무리들이 먼저 고향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가 이동하는 곳은 부천과 서울이 고향입니다. 굴포천 주변 동부간선수로를 따라 김포공항 주변 농경지로 올라갈 무리들은 이곳에서 물길 열릴 때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군하는 무리들에게 격려의 작별인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친 물살과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넘어야 합니다.

4월 중순 어린 참게무리의 동부간선수로 이동

4월 10일경, 동부간선수로의 물길이 열리면 어린 참게무리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짠 바닷물이 사라지고 비릿한 강물냄새를 맡으며 밤하늘의 달빛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90여 년 전에 동부간선수로가 처음 생겼을 때, 어린 참게무리들 간 기존 자연하천을 따라 갈 것인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길로 갈 것인지에 대해 큰 격론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믿지 못하지만 모험 많은 일부 무리가 동부간선수로를 선택하여 대장들녘 논습지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길은 위험하지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굴포천보다 선호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들어온 어린 참게들은 내륙의 넓은 들판에서 봄바람에 나부끼는 버드나무 이파리와 갈대의 멋에 반하게 됩니다. 예년에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참게 삼촌들이 어린 참게들을 환영해 주지만, 어린 참게들은 그들 곁에 살아서는 안 되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농부는 모내기를 위해 논을 갈고 물을 채운 후 써레질 작업을 합니다. 이때 날아오는 황로, 백로에게 들키지 않게 어린 참게들은 잘 숨어 있어야 합니다.

5월 농수로에 대기, 모내기 마친 후 논바닥 입수

동부간선수로에 가득찬 물이 용수로로 따라 거미줄처럼 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농부의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어린 참게들은 모내기가 끝나지 않은 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변 삼촌 참게들에게 들었습니다. 논에 들어갔다가 사람과 기계에 밟힐 수 있고, 포식자에게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어린 참게는 농수로와 논둑에 숨어 지내다가 농부의 모내기가 끝나면 그날 밤 논바닥으로 입수합니다. 서해바다가 가까운 한강하구를 떠난 지 두세 달 만에 느껴보는 평안함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 참게들은 한국산개구리와 수서곤충을 잡아먹으며 지친 몸을 달랠니다.

#

여름 논에서
어른 참게로 성장

김포공항 주변 논에는 참개구리보다 등에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더 많습니다. 금개구리는 참개구리에 비해 뿔박질을 못하여 참게들이 즐겨 사냥하는 먹이입니다. 벼 알곡이 익어 가는 한여름의 논에서 어수룩한 저녁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합창이 들리면 참게가 깨어납니다. 참게는 금개구리의 희생으로 속살을 찌우고, 껍질을 단단하게 키워줍니다.

참게는 벼와 함께 농부의 발걸음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뭄과 태풍이 와도 농부가 땀 흘려 논둑을 보수하고 물길을 잡아주어 논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 때문입니다. 농수로의 통발에 어린 참게가 걸렸으나, 농부는 아직 어린 녀석이라고 풀어줍니다.

#

9월 에너지 비축의 시기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야간 기온이 떨어지면, 참게들은 본능적으로 한강하구로 돌아가는 대장정의 이동을 준비하거나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생리반응이 시작됩니다. 참게들은 9월까지 많은 먹이를 먹어 체내에 노란색의 영양분을 비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양분을 알로 착각하고 고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믿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참게와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농부는 벼 수확을 위해 논에 물을 빼기 시작하며, 9월 중순에는 동부간선수로에도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농부와 참게 모두에게 가을은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가을 동부간선수로의 이동

논에서 2~3년을 지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분이 가득하여 생식적 반응이 무르익은 청년 참게들은 이제 황금들판으로 물든 들녘을 떠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논에 사는 이웃 어린 참게와 한밤중에 작별인사를 하고 동부간선수로로 이동합니다. 수로 바닥 첩병첩병할 정도의 얇은 물에 비쳐진 달빛을 따라 무리들이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밤하늘에 비친 은빛 물억새의 물결과 사각사각 갈대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을 위해 하구로 가는 것인지 모른 채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는 서둘러 수수깡으로 발을 만들어 수로에 말뚝으로 고정합니다. 가을밤 참게무리가 지나가는 물길에 함정을 만들어 참게를 잡기 위해서는 매복을 해야 합니다. 가을 밤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벗짚으로 엮을 엮어 만든 움막 안에서 참게를 기다리는 풍경은 생각만 해도 농부의 마음을 풍족함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게막 바닥에 하얀 사기그릇을 두고 기다리면서 새까맣게 물려오는 참게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의 게막과 통발을 무사하게 피한 참게는 쉬지 않고 강하구로 계속 전진합니다.

#

11월 한강하구 도착,
짜짓기, 산란

농부의 게막과 통발의 위험을 피해 무사히 한강하구에 도착한 청년 참게들은 비릿한 강물이 아닌 짹짹한 바닷물 냄새를 맡게 됩니다. 참게가 태어난 곳, 2~3년 만에 다시 들린 하구에서 바닷물은 그들의 원초적인 번식 본능을 자극합니다. 청년 참게들은 일제히 배우자 찾기에 나섭니다. 암컷은 보다 더 건강하고 힘세고 지혜로운 수컷을 짝으로 선택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짜짓기 후 수컷은 생명의 유전자를 남기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의 사랑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결과는 위대합니다. 참게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는 강물냄새의 기억, 수로를 따라 논습지로 찾아가는 능력, 금개구리를 사냥하는 능력, 농부를 피하는 능력을 전수해 줍니다.

게막에서 잡힌 참게들은 강하구의 짹물이 아닌 농부의 집에서 뜨거운 간장의 짹맛을 느끼면 생을 마감합니다. 가을바람이 살피운 참게를 얻은 농부는 부양할 가족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

12월 포란후 바다로 이동하여 부화

참게 수컷은 역할을 다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어미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강하구에는 바다생물과 민물생물이 교차하여 많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게의 유생은 민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알을 몸에 직접 품고 바다 가까이로 이동해야 합니다. 암컷 참게에 수컷과 달리 노란 영양분이 더 많은 이유가 산란이후에도 새끼를 보호하는 삶을 한 달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물에서 농부의 게막과 통발을 피해왔다 하더라도, 한강하구 김포 포구의 그물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린 참게가 바닷물에서 강물로 가기 위해 그냥 지나친 포구였지만, 이제는 어부의 그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수십만 마리 새끼를 위해서... 참게는 농부가 키우고 어부가 때로 잡습니다.

#

참게잡이 풍경을 즐기기 위하여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참게를 잡아갔지만, 과거에 참게들은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참게가 살을 찌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농부가 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참게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전처럼 살 수 있는 환경을 돌려준다면, 우리 무리의 일부는 기꺼이 농부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간장게장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게는 예전 풍요로웠던 참게잡이 게막 풍경이 그리웁습니다.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대장들녘 논습지를 지키기 위해 2017년부터 부천Y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장들녘 친구들'을 구성하여 대장동 논 1,200평을 임대하여 가족농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재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달력 및 엽서 만들기 등을 통해 대장들녘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부천시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저지를 목표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4일 오후 7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장들녘 지키기 활동을 함께 마무리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행사 시작은 부천 어린이Y 5명의 아이들이 힘차게 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개사곡을 부르며 아름다운 울동을 선보여 행사장을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해 돌아보기 발표는 대장들녘 생명포럼, 생태조사, 가족농부, 시민캠페인 활동 4개 영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생명포럼 돌아보기는 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장들녘의 보전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 대장들녘 생명포럼이 운영되었습니다. 생명포럼을 통해 대장들녘이 지닌 생물다양성 및 환경적 가치, 미기후환경을 조절하는 바람길의 기능, 시민건강 최후의 보루, 농업생태공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시흥 호조벌 사례를 통한 논의 생태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 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례와 비전, 생태계서비스 영향 평가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명포럼은 대장들녘 보전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대응논리를 갖추고 운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장들녘 생태조사 활동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다채롭게 공유되었습니다. 그간 어린이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태탐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대장들녘 생태대탐사와 성토현황 조사, 봄철에는 대기질 조사(부천지역 10곳), 여름에는 금개구리 대탐사와 맹꽁이 조사, 늦여름에는 피사리 활동, 가을에는 황금들판 생태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장들녘은 계절마다 다양한 생명과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장들녘 금개구리는 가족농부 한해농사 돌아보기를 발표하기로 했던 최혜연, 김민재, 김은재 가족(부천시민아이콧생협)이 독감에 걸려 참석하지 못해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활동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4월에 가족농부 첫모임에서 시작하여 5월 모내기, 6월 논생물 모니터링, 8월 벼꽃 그리기, 9월 허수아비 만들기, 10월 가을추수 벼베기와 벗짚꼬기 등 다양한

활동의 모습과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재두루미 먹이주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쌀 한톨의 무게를 몸소 느끼면 논에서 함께한 시간들로 알차게 보냈으며, 내년에도 꼭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들녘 시민캠페인 활동은 부천Y등대생협 김홍여 마을지기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 겨울 부천Y 이사, 실무자, 회원들이 중·상동 도심 캠페인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캠페인 활동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천역 마루광장 캠페인, 6·13지방선거 시장후보 정책질의, 도심 곳곳에서 대장들녘 개발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 마을을 다니며 알리는 자전거 라이딩, 부천시청 앞 토요일 나눔 장터 홍보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하게 재두루미 배터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여 시민인식 증진에 기여하였고, 곧 만화책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님께서 대장들녘 지키기 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특별강연을 위해 참여하셨습니다. 김정욱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4대강 개발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오신 원로학자이시며 기독교 환경운동에 철학적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양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연으로 '기후변화위기와 도시의 대응'이란 주제로 각종 환경이슈와 실천방안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며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입니다. 우리는 논습지가 만들어 낸 차고 시원한 공기, 풍요로운 지하수와 토양, 다양한 못생명의 서식지,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놀이터, 협력과 공생의 농업공동체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대장들녘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적 개발에서 지켜내고, 공공의 도시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2019년 부천Y 시민운동이 더 확대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이 절실한 이유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란 명칭으로 2023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년 6월까지의 실시계획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장들녘 지키기'에서 부천Y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두루미, 금개구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을 모니터링하고 대장들녘과 도심의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도시환경을 위해 논습지 보전의 타당한 근거를 만드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대장들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농부,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생명포럼 등에 직접 참여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대장들녘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부천Y 회원 대부분은 대장들녘의 우수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민으로서 대장들녘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서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생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이 곳은 한강과 연결된 동부간선수로에서 4월 중순부터 물을 끌어들이어 모내기를 하고 10월 중순에 물을 빼어 추수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벼농사를 위해 오랫동안 계절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절한 수위와 수량을 관리하고 비옥한 토양 및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 김포공항습지조사단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대장들녘에 총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의 법정보호종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대장들녘은 민족의 영물인 재두루미가 해마다 겨울에 도심 가까이 찾아오는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곳이다.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II급)는 전 세계에 7,000마리 정도 남았으며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남동부에서 겨울을 지내게 된다. 2012년 겨울 재두루미 63마리가 대장들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14년 겨울까지 매년 약 30마리가 우리 곁에 찾아왔다. 한강하구 김포 홍도평야의 개발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먹이활동이 어려워 부천까지 찾아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축복의 시간도 잠시, 겨울철 대규모의 논성토 작업으로 2015년에 재두루미의 숫자가 4마리까지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2마리만 잠시 목격될 뿐이었다. 2017년에는 11월

25일 대장들녘 생물다양성대탐사 행사에서 재두루미 2마리가 다시 발견되었다. 이번 겨울에 논성토 작업이 줄어들자 12월에 5마리, 7마리, 14마리까지 증가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셋째,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맹꽁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논습지이다. 5년 전부터 김포공항습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발견되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대장동 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논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맹꽁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휴먼시아 3단지 앞 논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작년에는 친환경농법 뿐만 아니라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목격되었다. 대장들녘 전체가 금개구리,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장동은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를 볼 수 있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곳이며, 수도권에서 생태문화적으로 중요한 제비마을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개구리는 ‘혐오동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제비는 직접 보지 못했더라고 정서적으로 아주 가깝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 2015년 부천에서 제비를 보겠다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대장동 학생제비모니터링단’이 생겼고, 작년에는 모니터링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부천시의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작년 대장동 마을에서는 34개의 번식둥지에서 성조 27쌍이 새끼 127마리를 키워 강남(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돌아갔다. 2016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표한 전국 농촌마을의 제비 서식밀도가 20~25마리였는데, 그 중 경기도는 최하위인 4.2마리였다. 대장동 마을은 36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연마을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비를 반기며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인심과 배려가 현재의 제비와 도시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장들녘은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자연 인프라이다. 부천에서는 굴포천과 주변 유역에 형성된 논경작지가 성주산과 원미산으로 연결되는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지와 바람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바람통로는 도시에서 발생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과 공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도심에 정체되지 않도록 확산시켜 대기오염 농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천의 중상동 개발 이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변화 회귀분석 연구결과, 논에서 시가지로 변화한 곳은 평균 2.840℃ 온도가 상승했고, 녹지율 65%를 확보해야만 1℃ 이하로 온도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2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계명대학교 정응호 교수는 부천의 환경용량은 이미 초과되었고, 대장들녘이 개발된다면 부천 도심의 폭염과 대기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며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대장들녘은 도시 어린이들이 들판에서 뛰어 놀며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실컷 보면서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이미 대장동은 농업체험 및 환경체험 활동지역의 중요한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천시는 손모내기 체험, 우렁이 방사, 메뚜기 잡기, 벼베기 체험 등 친환경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오정동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추억의 논썰매장, 별

자리관찰 가족캠프, 대장동 논학교 프로그램은 도시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작물 체험, 대장동 농촌 체험, 야생조류 생태, 논생물 생태, 곤충 생태 체험 등 ‘오정 희망마을 생태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농부에게 논을 임대하여 도시민 가족농부 공동체를 기반으로 토종벼를 심고 금개구리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대장들녘이 사라진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세대의 살아있는 체험환경교육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부천시청과 부천상공회의소는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지가 상승으로 부천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세수 확보로 부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산정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의 비용과 개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여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이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장들녘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장이 필요하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며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논습지가 만들어 낸 차고 시원한 공기, 풍요로운 지하수와 토양은 도심의 폭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두루미, 금개구리, 맹꽁이 등 다양한 못생명의 서식지,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놀이터, 협력과 공생의 농업공동체 유산을 지켜야 한다. 대장들녘의 ‘공유적 가치’를 사유적 개발에서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부천을 희망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적 가치’로 인식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적극적인 시민운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흥 호조벌과 일본 도요오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최진우 (대장들녘지킴이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대장들녘 생명포럼이 2차례 진행되었다. 지난 9월 17일에는 5차 생명포럼의 일환으로 생명의 땅 시흥 호조벌 탐방을 진행했고, 10월 2일에는 6차 생명포럼으로 '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박수택(정의당 생태에너지 부분부장, 전 SBS 환경전문기자)을 모시고 일본 도요오카 환경경제 사례와 비전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흥 호조벌과 일본 도요오카 사례가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흥 호조벌은 조선 경종 1년(1721)에 조선의 행정기관 6조 중 하나였던 호조(戶曹) 소속 진흥청에 의해 조성되어 '호조벌'이라고 한다. 당시 굶주린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제방을 쌓고 약 150만평의 농토를 만들었다. 300여년이 지난 지금 호조벌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이 찾아오는 생명의 땅으로 남아있다. 호조벌도 대장들녘과 마찬가지로 도시화로 인한 개발, 불법 성토, 주거용 하우스 등 난개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환경마인드를 가진 걸출한 김윤식 시장의 리더십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호조벌의 생태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호조벌을 미래세대와 야생 서식지를 위하여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거점으로 여기고, 시흥시의 랜드마크로서 수도권의 새로운 탐방여행지이자 바라지 관광축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호조벌 시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호조벌 지속발전추진단을 모집하고, Eco-planner를 양성하고, 호조벌 생태자원화를 홍보하고, 호조벌 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호조벌 창의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호조벌 생태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해 연꽃 산책누리길 조성, 호조벌 생태계 사계절 영상자료 구축, 호조벌 홍보관 조성, 호조벌 통행 높이 제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을 하였다. 최근에는 호조벌 생태자원화 핵심사업으로 「저어새 무논 만들기 프로젝트」, 「호조벌 생태원」 만들기, 「청소년 Eco-planner」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호조벌 시흥 에코 증권을 발행하여 시민과 기업의 모금으로 호조벌의 시민자산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 환경자산 만들기(환경요충지 조성): 무논(아생 서식지) 기부 조성



호조벌의 생태자원화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는 시흥시와 시민의 야심찬 시민자산 만들기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호조벌의 사례는 미래 도시를 위한 시장의 환경마인드와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조벌과 마찬가지로 대장들녘이 시민들에게 랜드마크적 생태자원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인식증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논습지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환경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반에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들녘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 증진에 기반한 시민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효고현의 도요오카는 8만 6천명의 소도시이지만 황새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자연의 텃새 황새가 자취를 감춘 1971년 이후 도요오카에서는 2005년에 시험 방사에 성공하였다. 도요오카 나카가이 시장은 1960년도 흑백사진에 담긴 책가방 메고 논길 걸어가는 어린이들 곁에서 먹이를 찾는 황새부부의 모습, 모래톱 발달한 하천 물길을 농부가 소를 앞세우고 가는 주변에서 황새가 떼로 모여 쉬는 풍경을 주목하였다.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생태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도요오카의 들과 강, 산이 황새의 쉼터, 먹이터, 집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다. 겨울철에도 논에 물을 대 주고, 경작하지 않는 논을 비오톱으로 바꾸며, 논과 농수로, 개울로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했다. 묵논 비오톱은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 기능을 겸하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기대던 관행적인 농법도 바뀌어나갔다. '황새 키우는 농법'이라고 이름 붙여 생산한 쌀은 '황새 키우는 쌀'이라는 상표로 일반 쌀의 1.6배나 비싼 값에 팔린다. 토목, 개발 사업도 황새를 배려하도록 이끌었다. 지역을 관통하는 마루야마 강 가운데 모래톱 16헥타르를 홍수 예방 차원에서 모두 파내려는 방재당국을 설득해 준설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강 하류 둔치를 돌워 모두 농지로 확대하려던 계획도 바뀌 일부를 습지로 보전했다.

도요오카는 황새를 극진하게 보살핀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다. 황새 복원사업의 연구 겸 전시, 교육을 하는 '황새고향공원'에는 한해 탐방객 30만명이 다녀간다. 게이오대학과 도야마 대학 연구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 증대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10억 엔(한화 140억 원)이다. 지역 국내선 공항(다지마공항) 이름도 '황새-다지마공항'이 됐고, 특급열차도 '황새호'다. 지역의 유명한 온천 기노사키-오사카 간 노선버스 몸통에도 황새를 그렸다. 우주 정거장에 보급품을 실어다주기 위해 2011년 1월 22일에 발사한 무인 보급기 이름도 '황새호'로 붙였다.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역의 마루야마 강 하류 유역과 주변 논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일본의 작은 지방 농촌 공동체가 황새 보호 하나로 국제적인 생태명소로 자리를 굳혔다.

나카가이 시장은 도요오카의 시정 목표로 '환경경제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을 좋게 하려는 노력과 경제활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자극을 주는 것, 다시 말해 '환경과 경제가 공명'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지금 도요오카는 과거 1960년대처럼 어린이와 마주쳐도 놀라지 않던 황새가 있는 마을 풍경을 되찾았다. 황새가 논에 돌아와서 반갑고 기쁘다고 하는 데, 더 반갑고 기쁜 일은 아이들이 논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황새 키우는 유기농 논에서 마음껏 놀게 되고, 아이들이 있는 논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아이들은 황새 키우는 건 강한 쌀로 밥을 먹으면서 황새 고향을 지키기 위한 미래세대의 자긍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 도요오카 사례를 들려준 박수택 선생님은 부천이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이지만 생명의 땅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을 시작으로 환경경제도시로 발전되기를 부탁하였다.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으로 시민환경 학습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여 수도권에서 모범이 되는 생태환경 경제도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태가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존재하던 천박한 시각이며,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이 남는 거다'라고 하였다.

우리 부천에 '시흥의 김윤식 시장, 도요오카의 나카가이 시장 같은 환경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갈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부천에서는 대장들녘의 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 우리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의 길을 넓혀 가면서 생태환경 경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부천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대장들녘의 존재와 가치를 더 알려내자!

대장들녘지키기 정책제안

- 대장들녘, 국가농업생태공원⁷⁾

7)
2019년 4월 9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정책제안한 내용

¶ 대장들녘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대안

- 공원 지정 및 조성을 통한 제도적 보전기반 마련 (토지수용 및 임대)

1. 부천시 도시공원 지정 및 개발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공원 지정
- 사유지 매입 vs 토지임대를 통한 사업 추진
- 민자개발 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공원부지 내 30% 민자개발)

2. 국가공원 지정 및 개발

- 부천시 대장동,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을 아우르는 수도권 도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 100만평 ~ 250만평 규모 (최소 300만㎡)
- 현행법상 공유지 토지에 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농업생태공원의 비전 및 목표

1. 수도권 100%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2. 도시민의 친환경 체험농업의 산실
3. 이익의 주민환원과 사회적 공유경제의 실현
4.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협동조합의 산실마련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5.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6. 도시귀농, 농업관광, 생태관광 등 각종 농업콘텐츠 및 6차 산업 개발
7. 논습지문화센터, 퍼머컬처센터를 통한 교육문화 및 체험 거점 마련
8. 한강하구 습지생태연구 거점으로서 국가농업생태공원 연구소 유치

㉑ 농업생태공원 개발구상(안)

공간구성	세부공간 및 프로그램
핵심시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습지문화센터(방문자센터, 습지교육센터) - 퍼머컬처센터(도시농부교육, 협동조합, 6차산업 추진) - 국가농업생태공원 연구소, 주차장 -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과학자 양성
가족여가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들숲, 야생풀밭, 잔디마당, 오토캠핑장, 자연수영장 - 야외공연장, 전망대, 자연놀이터, 자연도서관
생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화마을 계획으로 생활환경 및 마을 인프라 정비 - 주민소득 지원사업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습지정원	- 창포원, 연꽃수련원, 미나리원, 물빛언덕, 수질정화원
습지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습지원, 여월천습지원, 둠벙습지원, 갈대습지원, - 수서생물 관찰습지, 관찰데크, 야생조류관찰소
친환경 학교급식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개구리논, 맹꽁이논, 재두루미논 특화 - 깃대종 먹이터 및 휴식처 제공, 프록램 및 축제 개발 - 다양한 토종벼 특화단지 - 농사체험, 임대농업 등 시민참여 농업 프로그램 운영
생태텃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작물이용 디자인 텃밭, 시민참여 텃밭, 토종종자 텃밭 - 고향텃밭, 곤충텃밭, 다문화텃밭, 과수원길 - 피크닉장, 휴게쉼터
항금들판길	- 동부간선수로 및 논습지 연결 부천둘레길 4코스

㉒ 부천시 조감도와 국가농업생태공원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에서 제안한 ‘국가 농업생태공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영향 검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부천시와 민간기업), 토지주, 원주민, 입주기업 및 입주주민, 인근 주민에게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원주민과 부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검토한다.

2.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 및 외부비용 산정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대장동 안동네 주민생활을 존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취락지에 거주해 온 주민들의 소외된 삶에 공감하여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생태문화적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개발뿐만 아니라 부천시와 도시민이 마을주민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대장들녘, 마을주민, 도시민이 상호 공생하는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대장들녘의 광역계획 수립

대장들녘은 부천에서 마지막 남은 논, 도시폭염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바람길, 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 향토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으므로 대장들녘 부천 전체 120만평, 서울시 오곡동을 포함하는 총 250만평 들녘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한다.

5. 행정행위는 중지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민주적 결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일단 중지하고, 6.13 지방선거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대장들녘을 위한 발칙한 상상 모음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으로 시민환경 학습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높여 수도권에서 모범이 되는 생태환경 경제도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생태가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토건개발시대의 천박한 시각이며,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이 남는 거다' (박수택 메시지)

대장들녘 눈에 제비와 재두루미가 돌아와서 반갑고 기쁘는데, 더 반갑고 기쁜 일은 눈에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다. 금개구리 키우는 친환경 눈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고 뛰어놀 수 있게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아이들은 금개구리와 재두루미를 키우는 친환경 쌀로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일본 도요오카의 교훈)

대장들녘의 생태자원화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는 부천시와 시민의 야심 찬 시민자산 만들기 과정이다. 미래세대와 야생서식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여기고, 부천시 랜드마크로서 수도권의 새로운 탐방여행지를 창출할 수 있다. 대장들녘 시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발전추진단을 모집하고, Eco-planner를 양성하고, 생태자원화를 홍보하고, 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창의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재두루미 먹이 터 논을 만들고, 에코증권을 발행하여 시민과 기업의 모금으로 대장들녘의 시민자산화 운동을 추진하자. (시흥 호조벌의 교훈)

대장동을 생명과 환경,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농촌 마을로 꾸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 드론 등과 같은 첨단 제품의 생산기지로 서 보다는, 대장동 들녘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채 시인, 소설가, 화가, 음악가, 공예가들이 거주하며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공간 말이다. 더구나 부천은 지난 2017년 동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아닌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하면서 문학창의도시로서 부천의 특색도 살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현해당의 인문기행)

부천 대장동 120만평과 굴포천에 경인운하까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크추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 개구리, 메뚜기를 보며 염소와 놀입니다. 누군가 묵묵히 올레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장미 비누공장, 전통술공장, 과일잼공장

등이 있고, 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생크추어리 마트에는 각종 신선 채소가 연중 진열되어 있고요. 생크추어리 주민이 만든 목각 인형과 그림, 자작나무 소품, 생크추어리 캐리커처도 판매합니다. 신선 채소로 만든 건강 식당, 곤충과 곤충음식 판매점도 운영합니다. 물론 생크추어리 영농법인도 나무와 꽃도 팔고, 학교와 군인부대, 백화점, 마트 등에 생크추어리 농산물을 납품합니다. 대장동 토지주와 주민이 토지를 현물로 투자하고, 시민주를 모집하고 기업도 유치합니다. 수도권 부천에 농업과 화훼, 임업이 중심이 되는 공원 사업체인데 그것을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주주가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생크추어리 공화국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거죠. 수도권에 2,200만 소비자가 있어서 생크추어리 방문 수요는 충분합니다. 광명동굴이 입증했습니다. (한호석 페이스북)

대장들녘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는 도시계획적 대안으로 국가농업생태공원을 제안합니다. 이곳을 수도권 100%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지로 브랜드화하고 공동체 임대농업, 사회적 농업공유경제, 도농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여 미래 도시농업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논습지문화센터, 퍼머컬처센터에서 각종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국가연구기관이 터를 잡고 한강하구 습지생태 및 국가 논습지 보전 및 활용연구를 수행합니다. 대장들녘 넓은 면적에 금개구리는, 맹꽂이는, 재두루미는으로 생물다양성 논습지를 특화하고, 다양한 토종벼 생산 및 보급을 담당하는 곳도 마련합니다. 논뿐만 아니라 디자인텃밭, 분양텃밭, 토종종자 텃밭, 고향텃밭, 곤충텃밭, 다문화텃밭, 과수원길 등 도시민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농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포원, 연꽃수련원, 미나리원, 수질정화원, 둠벙습지원, 갈대습지원, 수서생물 관찰습지, 야생조류관찰소 등 다양한 습지생태공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생풀밭, 잔디마당, 캠핑장, 자연수영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자연놀이터, 자연도서관도 있습니다. 대장동 마을은 제비가 계속 찾아오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천의 보물같은 생태문화마을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농업생태공원 제안)

따사로운 햇볕, 일렁이는 황금들녘, 아름다운 저녁 놀, 큰기러기의 군무, 재두루미의 우아함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장들녘 가족농부 모내기 축문)

○ 일 시 : 2019. 1. 29.(수).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대표

진정인 김기현(부천YMCA), 박미현(부천시민연합), 최은민(평화미래플랫폼 파란), 유진생

피해자 대표

- 최진우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다동이 아빠, 환경전문가)
- 윤진이 (부천시민)
- 최여민 (부명중 1학년)
- 임민아 (부천시민, 다정이 엄마)
- 문정원 (부천시민, 6개월 아이엄마)

진정서 내용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천의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를 부천대장 신도시로 개발(104만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천,부평,계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로 부천대장 신도시로 발표된 대장들녘은 한강의 찬 바람이 부천 중심가로 유입되는 바람길입니다. 만일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되어 바람길이 막히면 환경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현재도 부천의 환경지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 발표 결과(2013년)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61.7%로 전국 최악(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은 54.4%)입니다. 불투수율이 61%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 콘크리트가 약 62% 덮여서 땅이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이 순환되지 않으며 집중호우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m²로 최하위입니다.(2014년 산림청 통계) 상황이 심각한 것이 도시숲이 제일 많은 성남이 6.11m², 제일 적은 수원시가 4.2m²이니 부천은 꼴찌 중에서도 현격한 꼴찌입니다.

부천의 환경지표가 이렇다 보니까 미세먼지 전국 최고 수준, 대기오염 전국 최고수준, 결국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이 타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밀도도 문제입니다. 부천은 현재도 서울에 이어 인구밀도 전국 2위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대장동 2만세대 뿐 아니라 상동영상문화단지 5천 500세대, 오정동 군부대 부지 3천 700세대, 역곡 5천 500세대(춘의.역곡 택지지구 개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1천 569세대, 기타 개발까지 합하면 총 4만 세대(약 4만세대 × 평균 3명 = 약 12만명)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천의 인구는 약 99만명으로 거의 100만명에 달하게 되고, 부천의 인구밀도는 약 18,500명/km²으로 인구밀도 1위 서울을 무려 약 2000명/km² 넘어서게 됩니다. 인구밀도 3위인 안양은 10,418명/km²이 km²당 약 1만 400명이 사는데 부천은 1만 8천명이 살게 되니 인구밀도 증가와 함께 수반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녹지율 감소, 초고밀도 도시화, 불투수율, 열섬현상 증가, 범죄 증가 등 환경, 사회적 문제가 예상됩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녹지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 할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배출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부천시는 현재에도 매우 녹지가 부족한 상태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녹지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기존의 녹지, 습지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라며, 부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 2일에 열린 제3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발제)

또한 부천대장 신도시 대상지인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는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법정보호종 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 등 총 32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寶庫)입니다.

2015년 12월 17일(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한 ‘대장들녘 생태조사’에서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마리, 큰 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2,240마리, 쇠기러기 212마리 등 야생조류 28종이 조사되었으며 고라니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천대장 신도시 대상지에는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학회장인 조효제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청정공기호흡권’에 관해 환경권 특별보고관이 집필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공기오염을 중요한 인권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19. 5. 21.)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가 개발될 경우 환경재앙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이것은 누구보다 취약한 사회적 약자(어린이, 임신부, 노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큰 영향을 주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인권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대장신도시, 괴상하고 저급한 ‘친환경 개발논리’의 날조를 멈추라⁸⁾

최진우 (대장들녘지킴이시민행동 정책위원장)

8)

2019년 6월 19일, 지역언론 기고문

장덕천 부천시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의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농단’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의 환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개발될 100ha의 공원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열섬현상 완화 측면의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구체적인 수치근거를 들어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곧바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신도시 개발 설명회에서 그의 환경논리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장 시장의 주장이 전혀 공정하지 못한 프레임이며, 근거 없고 정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장 시장은 대규모 건축물과 도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새로 생길 100ha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만 강조하는 등 개발에 유리한 논쟁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공론화를 위한 논쟁의 틀과 대상이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은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을 분석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라질 논과 생겨날 공원녹지만을 비교하고 있다. 시민행동측은 사라질 논과 개발될 신도시를 비교하자고 했는데 말이다. **공원녹지 이외 나머지 70만평의 산업단지, 도로, 아파트 부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열섬현상·탄소배출 등의 환경오염총량과 처리비용은 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부천도시 전체가 짊어져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외부비용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논습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적 가치 또한 잘못 계산되었다. 장 시장은 현재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조성될 73,788주(100ha 공원녹지 수목+가로수+주거단지 조경수)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산소 배출량은 약 23배, 열섬현상 완화는 약 200배,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32배 높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을 인용하여 버** 및 **논의 답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적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

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립농업과학원에 직접 확인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그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 및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식량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저감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발간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논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대장동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장 시장은 320ha 논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880톤으로 산정하였는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보다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본에서는 논 1ha당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을 산림의 약 68.5%라고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산림과 논 1ha당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논 1ha당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아직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지만, 저감효과가 적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저감효과가 적을 수도 없고, 농업을 장려해야 하는 자신들의 직분상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장 시장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논 1ha당 가치를 폄하하고 날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논보다 환경적 가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나무의 환경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었을까? 결과적으로 73,788주의 새로 심겨질 나무의 환경적 가치 계산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장 시장은 수목 식재를 통해 **성인 25만 8,257명이 연간 사용할 산소량이 발생하고, 연간 92,23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연간 150평형 에어컨 10만 대 1,475시간 가동효과가 있고, 13,272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의 계산결과를 필자가 나무 1주당으로 직접 환산해보니 연간 이산화탄소 1.2톤 흡수, 산소 0.9톤 배출, 대기오염물질 179.9g 저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계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이고, 1인당 배출량은 13톤이다. 나무 몇주 심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부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숲 조성을 장려하면서 '나무 1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고, 미세먼지 35.7g을 저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나무 1그루의 정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로세로 40m폭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아마 천년정도 온전하게 자라야 그 정도의 거대한 느티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시장측은 산림청의 이 근거에 따라 계산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뢰성이 있거나 과장허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발표해온 자료와 관련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의 단위면적당(ha) 주요 수종별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여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20년생 소나무림과 참나무림 1ha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8.34톤, 16.08톤을 각각 흡수하며, 소나무와 참나무 1그루당 2.76kg, 9.96kg을 흡수한다**고 한다. 도시 조경수는 산림수목에 비해 잎의 체적량이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탄소지킴이 도시숲'에서는 **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22.6kg을 흡수하고, 산소 16.5kg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수령 20년 도시 조경수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수종에 따라 **10~54kg 정도로** 확인되었다. 산림청 현재 홈페이지의 내용과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

다. 이에 따른 혼선이 도시개발의 정당성에 활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도시에서는 논습지와 도시숲 모두 중요한데, 논과 나무의 우위를 비교하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과 논쟁 프레임에 반대한다. 그러나 잘못된 근거에 의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를 제대로 따져보고자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근거에 적용하면 대장동 320ha 논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적용했을 경우(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 기준) **조경수 73,788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66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218톤**이다. 장 시장이 제시한 프레임대로 비교해 보아도 320ha 논이 환경적 가치가 100ha의 공원녹지와 73,788주 조경수의 가치보다 23배, 32배 낮은 게 아니라 4.2배나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장덕천 시장님! 결과에 승복하여 논을 보전하겠습니까? 장 시장이 계속 그의 주장과 근거가 맞다고 우긴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논리는 **논을 매립하고 나무 10주를 심으면 산림 1ha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괴상한 주장이며, 산림 1ha를 훼손하는 대신에 나무 10주를 심으면 된다고 하는 저급한 개발논리**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를 멈추라.”

9)

2019년 12월 19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대안’에서 논습지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이하 평가서)에는 행정계획의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하였다.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으로 생태계 훼손 가능성,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예상되나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No Action),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생태계 훼손 가능성,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이는 논습지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국립농업과학원(2008)에 따르면 논은 식량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 저감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총회(2008)에서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 결의문에 따르면 논은 지하수 재충전, 기후순화, 홍수 및 침식조절, 산사태 방지, 동식물성 식량자원 및 약용작물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 지금까지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은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을 분석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2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이 검토되지 않았다.

- 그러나, 평가서는 현재 논습지의 환경적·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개발계획 시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우이다.

- 부천은 정부 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이다. 더군다나 분지형 도시로 대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인근 서울, 인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나 한강 및 굴포천과 연계된 대장들녘이 부천의 바람길로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에 공급하는 자연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2019년 7월 18일 개최) 심의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되었고, 부천 및 인근 도시 전체로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국지적 미기상 바람유동, 도심열섬 변화 예측 모델링,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분석해야 한다는 심의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대기질 평가범위를 관례적으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만 설정하였고, 대상지 내부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 수립, 녹지공간 확보 및 수목 식재 등의 선연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악영향이 우려되는 미세먼지, 폭염 등 대기질 평가를 대상지 내부 및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도심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3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개체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 조류(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이동경로, 취·서식지 등에 대한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입지 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주택의 수요·공급 등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단지의 입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는 5월~8월 2차례만 진행되었고, 겨울철새 현황은 20개의 문헌조사만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문헌조사 결과에서는 겨울철새 종류와 출현위치만 파악되었고 겨울철새 보호종의 개체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었다.

2015년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장들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II 급)가 하루에 발견되는 최대 개체수로 2012년 70마리, 2013년 32마리, 2014년 27마리, 2015년 39마리이었다.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교란되어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대장들녘을 찾아오는 것이다. 2017~2019년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겨울철 논 성토작업으로 인해 재두루미 개체수가 3~5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겨울에는 논성토 작업이 줄어들자 재두루미의 개체수가 14마리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겨울에는 재두루미 4가족 16마리의 월동이 확인되었다. 대장들녘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의 중요한 먹이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인 큰기러기는 대장들녘 겨울철 논을 잠자리와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조사단'의 2008년 첫 조사에서 250마리 관찰되었던 것이 2016년 겨울조사에서 하루에 4,328마리나 관찰되었다. 저녁부터 대장들녘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아침에 먹이활동을 하다가 낮에 한강하구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도 하루에 대장들녘을 찾아온 큰기러기가 2017년 2,525개체, 2018년 3,528개체로 기록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인용된 한강하류 큰기러기 출현개체수(국립생태원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겨울까지 월별(10월~2월) 최대개체수의 평균이 5,322~9,341개체이었다. 이 결과는 한강하류 및 하구 권역 농지의 개발과 형질변경으로 큰기러기의 많은 무리가 대장들녘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으므로 대장들녘을 각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근거를 역설하고 있다.

평가서상 겨울철새 서식지 훼손 저감방안으로 김포공항 주변 및 김포시 후평리 지역에 섭식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서식지를 대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장들녘에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겨울철새 월동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한강하류 김포지역의 개발사업(김포신도시 등)으로 인해 먹이터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어 온 농경지가 훼손·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앞뒤가 바뀐 대책이다. 한강하류 및 하구 권역 겨울철새들의 먹이터로서 대장들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정보호종 조류(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을 고려할 때, 대장들녘은 신도시 개발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다.

- 평가서에는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조류보호종 중에서 새호리기, 황조롱이가 행동반경이 넓고 이동성이 크고 넓은 활동 범위를 갖는 맹금류의 특성상 공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후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에 따르면 새호리기, 황조롱이의 번식둥지가 대장들녘 농경지 및 마을 전봇대에서 발견되었다. 즉 대장들녘에서 번식둥지가 발견되었고,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계양신도시, 김포공항대중골프장)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까지 서식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공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비전문가적인 의견이다.

금개구리, 맹꽂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 규모, 개체군 크기 등을 조사·분석하지 않았다.

- 평가서 현지조사에서 멸종위기 양서류인 수원청개구리, 맹꽂이,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분포지점 도면을 살펴보면 금개구리 4개소, 맹꽂이 3개소, 수원청개구리 1개소만 확인이 되었을 뿐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의 크기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획지구 내 전반적으로 서식한다고 기술만 되어있을 뿐이다.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폭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맹꽂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눈습지이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논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맹꽂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맹꽂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시민조사단'은 2018년 6월 금개구리 탐사 결과 100여 마리를 여러 곳에서 관찰하였고, 2019년 7월에는 맹꽂이 수백마리가 산란하는 곳을 10여 군데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금개구리, 맹꽂이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 크기를 조사·분석하여 본 대상지가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니 토지이용구상(안)을 감안하여 개발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을 선정하여 서식지 조성 등 최적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멸종위기 양서류가 대장들녘에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대장들녘 전체 부지가 금개구리, 맹꽂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므로 사업자는 서식지 정밀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논(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반영하지 않았고, 논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논과 밭이 농업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작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현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2008년)에 따르면 논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이 기준을 대장동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평가서에는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원녹지 내 식재계획 수립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전 녹지(논, 밭)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원 손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대상 지역에 노거수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대장동 안동네에는 마을 당산목(할아버지나무)로 알려진 들메나무(350년생 추정)가 생육하고 있다. 개발부지와 인접한 대장동 안동네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평가서에는 대장들녘 논습지의 환경적·공익적 기능 및 가치, 자연환경 손실에 따른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폭염 등 대기질 및 시민건강 영향이 부천시 도심까지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법정보호종(재두루미, 큰기러기, 금개구리, 맹꽁이 등)의 서식현황이 제대로 조사·분석되지 않았다. 부실하게 작성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하고, 국토부는 대장신도시 사업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토론문

문정원 (부천시민)

안녕하세요. 현재 부천거마산 아래 살고 있는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부천에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결혼과 출산을 모두 부천에서 했으니 제 고향이고 남편의 고향이고 두 자녀의 고향입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페인트중독에 노출되어 6년이상 염증질환을 앓았습니다. 앞뒤 아파트 베란다에 칠한 페인트가 호흡기를 통해 5개월 아이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체내의 독성이 반감 될 때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아이를 돌보는 저 또한 갑상선이라는 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공원으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면역을 키워야했습니다. 면역을 키우는게 숙제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산에서 놀고, 공원에서 노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뤄야하는 것도 몸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그것이 나의 생명 유지와 연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더욱 절실히 집니다. 현재 첫째아이는 10살이 되

었고, 수시고 고열이었고, 만성 비염, 중이염이었던 아이가 완치되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코가 막히고, 급성비염 또는 중이염으로 열이 나거나 감기증상으로 찾아옵니다. 온가족이 비상이지요. 둘째가 지금 10개월인데, 아이랑 집에 있으면서 공기 중에 분무를 해주면서 생활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를 무리하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 집밖을 못나간다는 건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대가 비교적 높은 산 아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부천시 풍광은 짙은 안개 속 길 잃은 도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끝없이 떨어집니다.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저도 어른이니 저의 책임도 있겠지요.

어제도 10개월 아기와 산책하려고 검색해 보니 미세먼지수치가 높았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니 부천이 제일 나쁜 수치입니다. 다른 도시가 보통 일 때도 부천이 나쁨일 경우가 흔하게 검색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독 부천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분지형도 문제지만 인구밀집도가 큰 이유로 느껴집니다.

대장들녘에서 부천시민들과 논농사를 2년 정도 지었습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먹고 10년 만에 귀한 둘째를 얻었습니다. 땅과 흙과 가까이 하니 몸도 회복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뜨거웠지만 눈에 부는 바람은 더위를 식혀줬습니다.

대장들에서 같이 농사를 지었던 저희 집 열 살 아들이 말합니다. 그냥 나두면 안되냐고요?

저는 현재 산 밑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산 아래는 공원이 많다는 부천의 중심지보다 온도가 2-3도가 낮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작년 더위에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올해 빗을 내 에어컨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원하다는 산 아래도 기후변화에는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로 눈감을 일이 아닙니다. 분지형인 부천에 그나마 불어주던 한강 바람 길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부천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2-3일도 못가 먼지로 자욱한 부천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걱정이고 염려된다면 부천에서 왜 살고 있는냐, 그럼 떠나라 하실 건가요? 주변에 보면 자연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오밀조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시야가 트인 곳에서 내 아이가 뛰어노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부천은 그럴만한 곳이 정말 부족합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자가보다 택시나 버스 이용을 자주 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님이 2킬로도 안 되는 거리에 교통체증으로 20분을 넘기게 되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부천은 끝났어요”. 제가 다시 여쭙봤어요. 끝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좁은 땅덩이에 이게 뭐니까”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저는 부천이 끝났다는 말보다 마음이 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 아직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의 녹지가, 공기가 주변 환경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신까지 살기 좋은 도시이기를 바라기 때문

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마스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로 공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과 인구과밀화와, 교통체증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왜 맨땅에 콘크리트를 붓고 메우는 일을 하려 합니까? 자연이 살아야지 사람도 삽니다. 생명존중을 말하는 어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려합니까? 부천의 마지막 논습지 대장들녘을 대대손손 물려줘도 부족합니다.

부천의 바람길인 대장들녘에서 모내기 중에 금개구리와 눈 맞춤하던 큰아이처럼 둘째아이도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생명존중의 도시에서 살게 해주세요. 건강한 바람을 마실 권리,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천시와 국가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토론문

이명옥 (부천시민)

저는 고3, 중3 두 아이의 어머니자 부천에 15년째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두 아이가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천식과 비염이 있어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의 공기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흙도 만지며 자연을 느껴볼 기회로 함께 주말농장을 10년 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말농장을 하던 곳 중의 한곳이 부천의 대장동이었습니다. 회색도시인 부천에 대장동처럼 벼농사 짓는 논과 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벼농사 등으로 지어진 쌀은 최근 몇 년간 부천지역의 학교급식에 일부 공급되기도 하였다고 들었고 주말농장 근처 논에서 보았던 커다랗고 아름다운 새는 나중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재두루미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곳에는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생물들도 30여종이 넘게 살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곳이 처음엔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가 되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천에서는 바람길 역할을 하는 대장동의 개발계획에 맞서 몇 년 전부터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 꾸려졌고 부천 대장동의 생태환경에 관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민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저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웃들과 같이 대장동 한켠에 직접 벼농사도 지어보고, 해마다 찾아와주는 재두루미와 새들에게 겨울철 먹이주기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천대장 신도시가 발표된 작년에는 6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과 생태강사님들이 함께 하는 멸종위기 양서류 시민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저도 시민조사단에 합류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쓰고, 사우나복 같은 몸장화를 신고 비오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조사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눈에 2~3m 높이로 불법 성토를 하기 시작해서 야간에 농수로를 따라 금개구리를 찾는 조사는 마치 깊은 계곡비탈을 내려와 정글 숲을 만나는 것 같았는데 높이 성토된 논이 모습은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진 시간들이었고, 작년 대장들녘 시민조사단이 땀 흘린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도 모른 채 노란 두 개의 금줄을 보여주며 조사활동에서 만났던 금개구리의 모습은 마치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살아가는 저나 다음세대를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 우리 시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어 환경에 대해 몸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며 지내는 작은 아이는 대장동 논에서 만났던 금개구리도 토종벼 대궐찰도 잇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개발로 파괴되는 대장동 상황에 대해 환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천의 시민들이 진정서를 냈을 때 당사자로서 스스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은 수도권 도시들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유독 심하고, 이웃한 시흥시 면적엔 1/3크기에 인구는 두 배 가까이로 인구밀도가 전국 1,2위를 다투며 공원과 가로수들의 자정작용은 한계에 도달했고, 불투수율 전국 1위라는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 부천에 바람길로 허파 역할을 하는 대장들녘이 20년 5월, 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장동에서의 다양한 시민활동들이 떠오르며 그대로 지켜지기를 절절하게 바랐던 저의 염원은 허탈함과 무력감으로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대장동을 산업단지로 구상했던 부천시에서는 이번 3기신도시 지구지정이 국토부가 지정하는 국책사업이니 개발로 인한 환경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80만이 넘는 부천시민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도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개발에 대한 조건으로 그 땅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의 양서류 서식지 보존을 말해준 덕에 그나마 땅의 열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곳에 사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맹꽁이들의 서식처로 최대한 보전되도록 했다는 정도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질 대장 신도시로 인해 부천 대장동 그린벨트 지역은 파괴될 것이고, 한강 하구에서부터 부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바람길이 막히게 되면, 분지형 도시 부천의 열섬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환경전문가께서 해주신 강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가뜩이나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세먼지 최악의 부천시민들에게는 환경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부천시민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장동에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분들께도 오랫동안 사는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그동안 겪어 오신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이 신도시로 개발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저는 적어도 현재 부천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익은커녕 환경적 피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의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는데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잡겠다고 대장동에 2만세대의 신도시를 지으면 집값이 제대로 잡히는 게 확실한니까? 그리고 그 개발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보게 되는 부천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전에 없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제 대장동의 논습지가 갖고 있던 환경적 가치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속에 묻혀 버릴 텐데 국토부와 부천시는 신도시개발로 인해 더 열악해지는 부천의 환경에 대해 시민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진우 박사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10)

2019년 12월 19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 토론문을
재정리한 원고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정부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계획에 이어 지난 5월 7일에는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부지는 서울경계선 2km 이내로 연접한 지역으로, 개발면적은 3,274만㎡,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만㎡로 여의도(290만㎡)의 11.8배나 된다. 더욱이 부천 대장은 99.9%, 안산 신길은 100%. 장상은 97%,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성평가 1, 2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서울 중심에서 30분 거리"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의 목표가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인 경기도민의 삶은 뒷전이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키는 도시환경의 파수꾼이자 도시관리의 핵심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주요하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국내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도시 주변의 토지'의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행의 여타 행위규제 제도보다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서 도시 외곽 자연지역을 개발 확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지역개발의 정체로 낙후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갈등을 겪고 있어 개발의 유보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99년에 이르러 대폭 축소 조정되면서 그린벨트의 토지이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조치와 주택공급 정책 등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놓여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경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위기에 처한 부천 대장들녘!

대장들녘은 김포공항 남서쪽에 형성된 넓은 평야로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접하고 한강하구와 연결된 굴포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곳은 과거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평평야, 김포평야, 부천평야로 지명되었는데, 부천시 중동(1994년)·상동(2002년) 신도시 개발 이후 부천의 마지막 남은 들판을 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에는 대장동 마을 이름에 유래하여 '대장들녘'으로 알려졌다. 대장들녘의 규모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약 120만 평이고, 굴포천 동쪽의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논습지를 합치면 24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논습지이다. 이곳은 동부간선수로, 굴포천, 베르네천, 여월천이 흐르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

식하며,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되고 연결되는 바람길이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적인 그린벨트로 도심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2015년 5월경, 부천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약 70만 평 규모의 '대장동 산업단지' 건설을 발표, 2016년 10월 12일에는 부천시가 나서서 대장들녘 보전용지 약 70만 평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고, 급기야 2017년 12월 11일에는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2017년 1월부터 부천시의 산업단지개발로부터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인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대장들녘 친구들'을 구성하여 생태조사 및 탐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8년 1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부천시에서 대장동 개발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천의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활동 중에, 2019년 5월, 국토부가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동을 발표, 국토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되었다.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 중 104만평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간 지역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밝혀 온 자료를 토대로 대장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대장들녘 논습지가 가지는 생물다양성 가치, 도시 미기후 조절 가치, 지역 향토문화 계승 가치, 미래세대 농업체험·환경교육 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대장들녘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장들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및 영향>

가치	문제점
생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월동지 훼손, 한강하구 생태계에도 영향 • 맹꽁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 제비, 물총새, 개개비 번식환경 악화로 도래 개체수 급감
도시 미기후 조절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폭염 및 열섬현상 가속화되어 도심까지 악영향 • 인근 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 • 에너지량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및 도시관리 비용 증가
지역 향토문화 계승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마을의 살아있는 향토문화유산 훼손 (100년 근대 농업유산, 360년 전통마을)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농촌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미래세대 농업체험·환경교육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농업체험·환경교육 터전 상실 • 지역 친환경 쌀 생산지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 소멸

논습지의 환경적·공익적 가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이하 평가서)에는 행정계획의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하였다.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으로 생태계 훼손 가능성,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예상되나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No Action),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생태계 훼손 가능성,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논습지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국립농업과학원(2008)에 따르면 논은 식량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 저감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총회(2008)에서 「습지로서의 논을 생물다양성 강화」 결의문에 따르면 논은 지하수 재충전, 기후순화, 홍수 및 침식조절, 산사태 방지, 동식물성 식량자원 및 약용작물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은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을 분석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평가서는 현재 논습지의 환경적·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개발계획 시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우이다.

도심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

부천은 정부 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이다. 더군다나 분지형 도시로 대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인근 서울, 인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나마 한강 및 굴포천과 연계된 대장들녘이 부천의 바람길로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에 공급하는 자연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2019년 7월 18일 개최) 심의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되었고, 부천 및 인근 도시 전체로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국지적 미기상 바람유동, 도심열섬 변화 예측 모델링,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분석해야 한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대기질 평가범위를 관례에 따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만 설정하였고, 대상지 내부 및 인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 수립, 녹지공간 확보 및 수목 식재 등의 선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악영향이 우려되는 미세먼지, 폭

염 등 대기질 평가를 대상지 내부 및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도심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 서식현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 조류(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이동경로, 취·서식지 등에 대한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입지 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주택의 수요·공급 등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단지의 입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는 5월~8월 2차례만 진행되었고, 겨울철새 현황은 20개의 문헌조사만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문헌조사 결과에서는 겨울철새 종류와 출현위치만 파악되었고 겨울철새 보호종의 개체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었다.

2015년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장들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II급)가 하루에 발견되는 최대 개체수로 2012년 70마리, 2013년 32마리, 2014년 27마리, 2015년 39마리이었다. 최근 한강하구에 위치한 김포, 파주의 도시개발 확대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민통선 일대 인삼재배 및 비닐하우스 증가로 재두루미의 먹이활동이 교란되어 상당수의 재두루미가 대장들녘을 찾아오는 것이다. 2017~2019년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겨울철 논성토작업으로 인해 재두루미 개체수가 3~5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겨울에는 논성토 작업이 줄어들자 재두루미의 개체수가 14마리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겨울에는 재두루미 4가족 16마리의 월동이 확인되었다. 대장들녘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의 중요한 먹이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큰기러기는 대장들녘 겨울철 논을 잠자리와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조사단’의 2008년 첫 조사에서 250마리 관찰되었던 것이 2016년 겨울조사에서 하루에 4,328마리나 관찰되었다. 저녁부터 대장들녘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아침에 먹이활동을 하다가 낮에 한강하구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도 하루에 대장들녘을 찾아온 큰기러기가 2017년 2,525개체, 2018년 3,528개체로 기록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인용된 한강하류 큰기러기 출현개체수(국립생태원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겨울까지 월별(10월~2월) 최대개체수의 평균이 5,322~9,341개체이었다. 이 결과는 한강하류 및 하구 권역 농지의 개발과 형질변경으로 큰기러기의 많은 무리가 대장들녘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으므로 대장들녘을 각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근거를 역설해주고 있다.

평가서상 겨울철새 서식지 훼손 저감방안으로 김포공항 주변 및 김포시 후평리 지역에 섬식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서식지를 대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장들녘에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겨울철새 월동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한강하류 김포지역의 개발사업(김포신도시 등)으로 인해 먹이터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어 온 농경지가 훼손·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앞뒤가 바뀐 대책이다. 한강하류 및 하구 권역 겨울철새들의 먹이터로서 대장들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정보호종 조류(재두루미, 큰기러기)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을 고려할 때, 대장들녘은 신도시 개발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다.

평가서에는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조류보호종 중에서 새호리기, 황조롱이가 행동반경이 넓고 이동성이 크고 넓은 활동 범위를 갖는 맹금류의 특성상 공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후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에 따르면 새호리기, 황조롱이의 번식동지가 대장들녘 농경지 및 마을 전봇대에서 발견되었다. 즉 대장들녘에서 번식동지가 발견되었고,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계양신도시, 김포공항대중골프장)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까지 서식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공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비전문가적인 의견이다.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현황

평가서 현지조사에서 멸종위기 양서류인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분포지점 도면을 살펴보면 금개구리 4개소, 맹꽁이 3개소, 수원청개구리 1개소만 확인이 되었을 뿐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의 크기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획지구 내 전반적으로 서식한다고 기술만 되어있을 뿐이다.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폭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맹꽁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눈습지이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눈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맹꽁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시민조사단'은 2018년 6월 금개구리 탐사결과 100여 마리를 여러 곳에서 관찰하였고, 2019년 7월에는 맹꽁이 수백 마리가 산란하는 곳을 10여 군데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 크기를 조사·분석하여 본 대상지가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니 토지이용구상(안)을 감안하여 개발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을 선정하여 서식지 조성 등 최적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멸종위기 양서류가 대장들녘에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대장들녘 전체 부지가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므로 사업자는 서식지 정밀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현황

평가서 현지조사에서 멸종위기 양서류인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분포지점 도면을 살펴보면 금개구리 4개소, 맹꽁이 3개소, 수원청개구리 1개소만 확인이 되었을 뿐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의 크기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획지구 내 전반적으로 서식한다고 기술만 되어있을 뿐이다.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폭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맹꽁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눈습지이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눈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맹꽁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시민조사단'은 2018년 6월 금개구리 탐사결과

100여 마리를 여러 곳에서 관찰하였고, 2019년 7월에는 맹꽁이 수백 마리가 산란하는 곳을 10여 군데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 크기를 조사·분석하여 본 대상지가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니 토지이용구상(안)을 감안하여 개발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을 선정하여 서식지 조성 등 최적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멸종위기 양서류가 대장들녘에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대장들녘 전체 부지가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므로 사업자는 서식지 정밀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논(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논과 밭이 농업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작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현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2008년)에 따르면 논이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당 21.9톤, 연평균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이 기준을 대장들녘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평균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평가서에는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원녹지 내 식재계획 수립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전 녹지(논, 밭)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원 손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투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평가서에는 대장들녘 논습지의 환경적·공익적 기능 및 가치, 자연환경 손실에 따른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폭염 등 대기질 및 시민건강 영향이 부천시 도심까지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법정보호종(재두루미, 큰기러기, 금개구리, 맹꽁이 등)의 서식현황이 제대로 조사·분석되지 않았다. 부실하게 작성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사업의 입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가질 수도 없다. 환경부는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했고, 국토부는 대장신도시 사업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단 한 번의 보완없이 2020년 5월에 조건부동의로 협의가 끝났다.

환경부 조건부동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연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통풍축·바람길 확보 등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 대장들녘(논습지) 개발로 도시 전체에 미치는 환경재앙과 시민건강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부지 내의 환경개선에 함몰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서식처 훼손 쟁점은 오히려 항공기-조류 충돌의 문제로 받아들여 충돌위험성을 예측·평가하고 한강하구 일원에 대체서식부지를 마련하라고 한다. 유일하

게 받아들인 문제는 법정보호종 양서류이다. 금개구리, 맹꽁이 등 종별 서식환경 특성과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보전방안(원형보전, 대체서식지 및 공원 조성,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개발로부터 논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유일한 희망인가? 이들도 대체서식지 마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텐데...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11)
녹색평론 2020년 3-4월호에 게재된 글

2019년 5월 7일부터 이삼일. 기가 막히고, 허탈한 마음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개발 반대를 위해 부천시청 앞에서 30일간 ‘릴레이 단식천막’을 운영했던 기억, 세월호 참사 후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보냈던 수많은 날들, 추운 삭풍 속에 일어난 촛불시민들의 강렬하고, 우직하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촛불의 물결...소박하고 겸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지난 2년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지만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5월 7일,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결국 문재인 정부도 토건이고, 농사와 그린벨트에 대한 이 정부의 편협된 시각과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기이한 모습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환경지표 전국 최악, 부천

¹²⁾
오랜 기간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였다가
최근에 전국 1위가 되었다.

¹³⁾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으로,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집중호우 시에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이 저지대로 몰려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부천은 53.44km²의 좁은 면적에 약 87만이 밀집해서 산다. 그러다 보니 인구밀도(약 16,370명/km²) 전국 1위¹²⁾이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결과 부천은 불투수율¹³⁾이 61.7%로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구밀도 2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이 54.4%이니 부천은 환경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땅이 건강하지 못한 도시라는 뜻이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m²로 최하위이다. (수원시 4.2m², 고양시 4.42m², 성남시 6.11m², 용인시 5.75m², 안산시 5.77m², 2014년 산림청)

이런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인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6년 미세먼지(PM10) 농도 상위 20개 측정소 중 부천이 3개(내동, 상1동, 원종동)를 차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2019년 7월 18일 오후 2시,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경기도 모든 도시가 미세먼지(PM10) ‘보통’인데 유독 부천만 ‘나쁨’(111)으로 나오고, 초미세먼지(PM2.5)는 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나쁨’(김포 44, 광명 61, 시흥 69)인데 부천은 ‘매우 나쁨’(90)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서울로 이사 간 분이 오랜만에 부천에 오면 “부천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지 몰랐다. 서울이 오히려 낫다.”고 하고, 지방으로 이사 간 분이 “이사 후 아이들 아토피, 천식이 나아졌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문화도시이기도 하고, 편의성도 높지만 환경 때문에 이사 가고 싶다.”는 기막힌 탄식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생태계 보고(寶庫) ‘대장들녘’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서 대장들녘은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법정보호종 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 등 총 32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 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2015년 12월 17일(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대장들녘 생태조사’에서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마리, 큰 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2,240마리, 쇠기러기 212마리 등 야생조류 28종이 조사되었으며 고라니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2018년 6월 진행된 ‘금개구리 대탐사’에서는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00여 마리가 관찰되었고, 2019년 7월 진행된 ‘맹꽁이 야간탐사’에서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수백마리가 산란하는 곳을 10여 군데 확인하였다.

대장들녘이 이렇게 생태계 보고(寶庫)가 된 것은 부천 120만평, 서울시 강서구 120만평의 광활한 논습지이고, 한강하구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 압력 속에서도 아직까지 대장들녘이 보전되었던 것은 ‘김포공항’과 면해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14)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로 부천시장이 되었지만 부천시청 옆 시민의 땅 1만평을 매각해 49층 아파트 12개 동을 짓고, (무산되었지만)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 신세계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등 부천의 난개발, 막개발을 강행한 ‘부천 토건개발’의 상징인 정치인이다.

그런데 2015년 5월경 부천상공회의소가 “대장들녘을 산업단지로 만들자”고 나서기 시작하더니 2016년 10월에는 김만수 전임시장¹⁴⁾이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부천시 정책으로 공식화하였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민공론화’를 무산시킨 문재인 정부

2016년부터 부천지역 23개 시민단체는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구성하여 ‘대장들녘 생명포럼’을 8차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생태조사’ 활동을 8차례 진행하였고, 2017년부터 ‘금개구리 가족농부’ 30가족이 농농사를 하고 있다. 2019년 7월 5일에는 “부천대장 신도시로 인한 환경파괴로 인권이 침해된다.”며 60세부터 중2 청소년까지 부천시민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시민캠페인과 1인 시위는 수없이 진행되고 있고,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그러다보니 장덕천 부천시장은 2018년 10월 11일 진행된 ‘부천시민 400인과의 대화’에서 “시민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대장동 산업공단’을 추진하더라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9년 5월 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부천대장,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가 부천시민들 삶의 조건과 아픔을 알고 있을까? 당연히 모를 뿐 아니라 안중에도 없다. ‘3기 신도시’ 모토는 “서울 중심에서 30분 거리”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2019년! 한국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질까? 군사독재 시절이나 통용되던 이런 방식의 유일한 명분은 ‘투기억제’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부천시장이 나서서 산업공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개발수요로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¹⁵⁾ 부천 대장들녘을 부천시민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시민공론화 과정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사실 부천대장 신도시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가 토건일 뿐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2026년까지 개발하여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3기 신도시’ 개발 면적은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만m² 로 여의도 면적(290만m²)의 11.8배나 된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은 서울경계선 2km 이내로 연접한 지역으로 이곳이 개발되면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경계가 없어진다. 또한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5) 2019년 11월 12일 개최된 ‘대장동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는 수많은 전직 부천시 공무원들이 땅주인으로 참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수도권 논습지는 개발예정지인가?

기후위기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들이 헛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기성세대 모두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시대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48.9%**,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하다. 그나마 쌀이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선진국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라 식량안보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선진국 식량자급률은 캐나다 121%, 프랑스 83%, 미국 92%, 이탈리아 80%,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일본도 70%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수도권 논습지를 대규모로 파괴하려고 한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작년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과 같은 지역 대도시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을 우려한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시 신도시'를 강행하는 것도 필자에게는 허황되게 들린다. 왜 이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하는가?"라는 토지정의 전문가들의 정당한 목소리에는 귀 막고 있는가?

이 시대에 사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4·15 총선후보에게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개발추진 관련 시민공론화 정책제안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현황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위해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개발사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월~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11월 12일 주민설명회 실시, 12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올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천시민들의 환경권 피해 진정접수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인권친화적 도시개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민공론화와 인권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문제점

대장들녘의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한 부천시민들은 그린벨트 대장들녘 논습지를 훼손하고 부천대장 신도시(104만평)가 개발될 경우 환경재앙으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근간이 되는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조성되는 신도시 개발은 주변 도시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임신부, 노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되었고, 시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책제안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개발추진에 있어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공론화 정책(세 개의 안)을 제안한다.

(아래 중 선택)

1안) 기존 민관공협의체를 활용하여 시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확대 운영한다.

2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결정과 계획을 합의 추진한다.

3안)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녹지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안을 마련한다.

(기타)

3기 신도시 부지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보전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서울 그린벨트 개발논란을 키우다, 여론에 밀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전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지역의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개발추진으로 해제절차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부천시 대장, 고양시 창릉,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는 서울경계선 2km 이내의 연접지역으로 여의도의 11.8배나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땅도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하는 땅이고, 경기-인천의 그린벨트는 막 개발을 해도 되는 땅인지 묻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 부지의 특징은 서울과 가까운 접근성입니다. 30분 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산, 분당, 평촌보다 더 가까운 곳, 서울과 경기가 맞닿은 곳, 결국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에 개발의 칼날을 대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를 짓던 녹지공간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둘러싼 여의도 11.8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3기 신도시 부지의 대규모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개발사업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는 대부분 논과 밭이 있는 농지입니다. 논밭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대장지구의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입니다.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재두루미, 제비, 큰기러기가 날아오고 금개구리, 맹꽁이가 우는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땅입니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입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이 들판에 뛰어놀며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실컷 보면서 생태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농업공동체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부지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입니다!**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품을 수 있는 수천수만 명의 사람

최진우 박사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부천시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몇 년간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장신도시 개발로 위기에 처한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금개구리,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가 서식하는 논습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urgent한 것은 시민의 환경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숨 쉬며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시민의 환경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보호에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태환경을 짓밟는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의 환경권을 논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2020년 5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부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에서 서식하는 양서류 법정보호종의 종별 서식환경 특성과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조사 등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은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6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시민조사단의 활동은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최선의 서식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활동가들로 구성된 지역생태 전문조사원 8명이 24차례 조사(연인원 161명 투입)를 수행하였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7차례 기획·운영하여 72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개구리, 맹꽁이가 대장들녘에서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논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시작되면 농민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개구리 맹꽁이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들녘 시민조사단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인 셈입니다. 더 굵은 동아줄은 대장들녘 인근의 주민들, 부천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그런 맥락을 잘 풀어가기 위해 대장들녘에서 표상화된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어느 곳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지역은 어느 곳이 적당한지. 생태공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제안하고 관찰시켜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찾아서 기록하는 대장들녘 시민조사단의 노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의 '시민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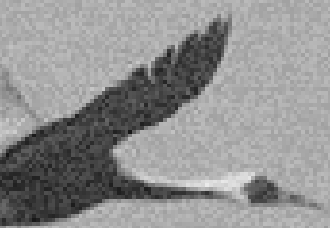
24차례 시민조사단 활동에서 233명의 시민이 발견한 금개구리는 자그마치 1,633마리, 맹꽁이는 셀 수 없을 정도인 10,383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금개구리와 맹꽁이 발견지역은 서식범위를 지도에 표시하여 주요 서식지역을 파악하였고, 중복조사에 따른 개체수 산정 오류도 해소하였습니다. 직접 목격한 개체를 우선으로 조사하였고, 울음소리를 듣고 개체수를 보완하였습니다. 목격 또는 포획한 개체는 증거사진을 찍고 울음소리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모두 기록에 남겼습니다.

지난 8월 말 시민조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진(책임: 한봉호교수)과 워크숍을 통해 파악된 주요 서식지와 개체수 조사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논의결과, 대장들녘에 실제로 금개구리 수천 마리와 맹꽁이 수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민조사단은 주요 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전습지 확보 등 서식처 보호대책 방안마련을 촉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하는 금개구리·맹꽁이 서식처 보호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장들녘 논습지 훼손을 줄이고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천수만 마리의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보다,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수천수만 명의 사람과 연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7. 대장들넉지키기 성명서 모음





김포공항 습지 매립 반대한다. 골프장 사업 철회하라.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약 1300억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99만6000m)을 추진 중이고, 이 중 부천지역에는 9홀, 약 10만평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골프장 예정부지가 광활한 습지로 구성되어 '새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한봉호 교수)의 현장조사결과(2009년 2월, 2012년 8월)에 따르면 재두루미, 황조롱이, 큰기러기, 새매, 뜸부기 등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조류만 25종이 김포공항 습지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마치 인간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DMZ 지역이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되듯이 한국공항공사에서 1989년부터 항공기 소음민원과 이착륙 안전을 위해 완충녹지로 조성하기 시작한 땅에 습지가 복원되고, 새들의 오아시스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습지를 밀고 골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에 실시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5년 9월 12일과 13일 겨우 2일간에 걸쳐 진행된 부실한 내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역시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주장 역시 이미 습지가 복원되어 매년 상당히 많은 새들이 김포공항 습지에 찾아오고 있지만 그로 인한 항공기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포공항 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양한 수서곤충 등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장 들판과 연결되어 적절한 관리와 결합되면 드넓은 습지와 철새를 볼 수 있는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역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은 녹지와 생태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녹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과제이다. 김포공항 습지는 인간의 손길이 끊긴 후 자연의 복원력 그대로 되살아난 대표적인 곳이다. 부천시민연대는 '김포공항 습지 매립반대, 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소수를 위한 골프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김포공항 습지를 보존하는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 9. 11.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

대장동 수변의 버드나무는 누가 다 잘라냈는가?

흔히 버드나무는 봄의 도래를 알리는 나무라 알려져 있다. 주로 물가에 서식하며 봄이 오면 물을 흡수하여 주위 식물보다 먼저 싱그러운 싹을 틔우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도시인 부천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답리 버드나무들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 바로 대장동 버스종점 앞 동부간선수로(일명 데부둑)이다. 이곳은 김포공항 습지. 대장평야와 더불어 녹지가 부족한 부천의 시민들에게겐 여유롭고 멋진 풍경으로, 라이딩족들에게 한 숨 쉬어가는 쉼터로 사랑받던 곳이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수로정비공사를 한다며 하천 밑바닥의 흙을 퍼 올려 쌓고 거기에 가림돌을 올려놓아 수로변의 무성하던 갈대들이 차츰차츰 사라지더니, 선거가 있었던 지난 4월 13일, 이곳에 있던 버드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싹둑 잘려나갔다. 데부둑 서쪽의 능수버들 2그루와 이태리포플러 3그루는 완전히 도륙 당했으며, 건너편엔 가지는 다 잘려나가고 몸집만 남은 능수버들 1그루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다. 현재는 베어진 나무들을 대신하여 삭막한 가림돌들과 펜스가 둘러쳐져 이전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 나무를 베기 전 아름다운 강변의 모습 >



2006년 9월 1일/ 촬영: 최진우 박사(환경생태연구재단)



2008년 6월 14일/ 촬영: 청미래

< 수로정비 및 벌채 후 모습 >



2015년 12월 2일 / 촬영: 청미래



2016년 4월 16일/ 촬영: 청미래

동부간선수로는 넓은 대장들녘의 논농사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들이 물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1924년 조성된 인공수로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강의 참개, 붕어, 잉어들이 넘쳐나고 뱀장어까지 오는 등 한강과 연결된 젖줄이다.

하천변의 버드나무는 데부둑의 흙을 잡아주어 토사가 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막아주며, 주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걸러주는 등 수질정화작용을 할 뿐 아니라 하천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해왔다.

대장동 들녘에 찾아오는 철새들, 특히 여름철새인 개개비는 데부둑에 서식하는 갈대밭에 동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이 매년 관찰되기도 하였으며, 수로변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앉아 먹이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로정비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무성했던 갈대밭이 사라지자 이곳을 찾던 철새들도 날아들지 않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지난 겨울 대장동 들녘을 찾아왔다가 성토작업이 계속되자 덤프트럭 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성토로 인해 먹이를 얻기 힘들어진 재두루미가 대장동을 떠나 인근 김포평야 등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장동 수로변의 버드나무 벌채 문제는 나무 한그루의 생태적 가치를 넘어서서, 생태계의 순환 차원에서 인식되고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생명들은 서로서로 세밀하게 잇대어져 있으며, 자연의 일부인 사람 역시 이에 속한다. 그 순환의 고리 안에 한 부분으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 수로변 펜스작업과 버드나무 벌채는 누가, 왜 한 것일까?

그리고 철새들의 서식을 위협하는 성토작업은 왜 제재 없이 계속되는 것일까?

부천시는 이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데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의 손길들이 필요하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반생태적 행정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 들길 바란다. 주변 경관과 더불어 하천의 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생물들이 자생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천환경보전과 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6년 4월 26일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청미래, 부천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사랑의교회,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한국노총부천지부, 부천녹색당

대장들녘은 땅 투기 대상이 아니다!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시의원은 사퇴하고 토건 민주당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김만수 부천시장이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스쳐지나갔던 이야기를 15년 만에 현실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천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인 대장들녘은 겨우 내내 흙을 갖다 붓는 덤프트럭 소리가 요란했고, 생명의 보고 김포공항습지는 지금 골프장을 만드는 불도저에 짓밟히고 있다. 거기에 더해 대장동 전체를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가 구체화 되고 있다. 온갖 생명을 키워내는 초록들판,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대고,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날아들던 대장들녘은 아무 의미가 없던 곳으로 취급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욕망만이 춤추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만수 시장이 벌인 일이다. 부천시 전역에 토건사업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대장들녘까지 노리고 있다. 도심의 공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더 들어온다는 판에 박힌 논리지만 결국 토목이고, 땅장사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의 부인이 작년에 개발예정지인 대장동의 논을 샀다고 한다. 900여 평을 4명이 나눠서 샀으니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은 아닐 듯하다. 시청 옆 특별 구역에 건물을 사서 되팔았다던 그 시의원이나 재테크에 밝을 것이고, 자기 정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일이고 대장동 산업단지 추진위원으로까지 이름을 올렸던 분이니 개발계획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농사지를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해가며, 개발계획이 있는 땅을 골라 매입하는 배짱 좋은 시의원은 개발을 일삼는 작금의 부천시의 본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구조는 바뀌고 있다. 넓은 땅을 밀어서 공단을 지으면 저절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주먹구구에 동의할 수 없다. 날이면 날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녹지가 풍부한 도시를 원하고 있는데 그나마 농토를 없애고 공단을 만드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과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를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개발정보 이용하여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역세권개발, 특별구역개발, 영상단지매각 등 그럴듯한 명분으로 토목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김만수 시장은 모든 토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3. 소속 정당의 시의원이 땅 투기를 하고 소속 정당의 시장이 토건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부천시 민주당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7. 4. 11.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국토부 대장신도시 발표 후 부천시민 반응 '부천은 숨 막히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대장동 바람길 막는 신도시 개발
'나쁜 공기 정체...초미세먼지, 열섬현상 가속화'
아이 키우기 힘든 최악의 환경

부천시, 대장동 미래 공론화 요구 묵살
느닷없이 104만 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 발표

자연녹지율 전국 꼴지, 불투수율 전국 꼴지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
부천시민 피로도 최고조

부천시민사회, 부천시의 일방행정·불통행정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 농단에 일침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85만 부천시민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이를 감추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에서 끌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부천시가 시민을 저버리고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정책을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부천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강행한다면 부천시민사회단체 나아가 85만 부천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대부분 부재지주), 땅장사·집장사식 공기업과 주택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인들의 감춰두었던 토건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정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도시확장 및 인구집중은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좁은 면적의 도시에 국내 최고의 인구밀도(현재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천시에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숨통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막막하다. 부천은 정부 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이다.

대장들녘 논습지는 공익적 가치가 풍부한 땅이다.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 생산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에 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이다. 도시 어린이들이 들뜰에 뛰어놀며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지난해 새로운경기위원회 청원사이트에 「부천 대장들녘의 미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가 조회수 3338개, 좋아요 2241개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장덕천 시장과 시민단체의 면담에서 시장은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느닷없이 대장들녘 104만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로 되돌아 왔다.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는 주민들의 개발반대 민원으로 국토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천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부천시민이 개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개발을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프레임이다.

국토부는 서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된 판교, 우레, 광고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지역 지정에 있어 해당 도시의 친환경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특히 부천대장지구는 지자체(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신도시로 지정되는 사례인 만큼 개발로 인한 장래 도시계획의 변화와 장단점을 중앙관청이 철저히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대장들녘의 신도시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초고밀도 도시의 길을 열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멀어지고 환경피해와 재앙이 우려된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의 요구>

1. 대장들녘의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을 폐기하고 대장들녘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며 원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대안을 마련하라.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라.
3. 생태계서비스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2019년 5월 9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 수도권 생태계 보전에 치명적 재앙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논습지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지난 5월 7일(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부천시 대장동 일원 343만㎡(약104만평) 부지에 주택 2만호를 건설하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천대장 104만평 신도시 개발계획은 부천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포공항습지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논경작지와 연계되는 총 240만평 논습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논습지는 영농기간 동안 일정한 수위와 수량이 유지되는 습지로서 자연습지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되므로 많은 습지 생물들의 서식지뿐만 아니라 피난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2008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로서의 논 생태계 다양성 강화」 결의문을 채택하여 당사국들에게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을 관리하고, 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논습지 보전을 위한 부처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대장들녘 일대는 한강 및 굴포천 하류의 범람원 지역으로서 벼농사를 위해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적절한 수위와 수량을 관리하고 비옥한 토양 및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었다. 최근 한강하구의 논경작지가 성토되어 밭, 비닐하우스로 형질 변경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논이 온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 생물서식지로서 양호한 기능을 하고 있다.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시민조사단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4)에 따르면 총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의 법정보호종이 대장들녘에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대장들녘은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II급) 월동지로 알려졌다. 2012년 겨울에 재두루미 70마리, 2013년 32마리, 2014년 27마리, 2015년 39마리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 논성토 작업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다 지난 겨울에 14마리까지 발견되었다. 재두루미는 현재 전 세계에 7,000개체 정도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다. 대장들녘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재두루미의 중요한 먹이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논습지이다. 작년에는 금개구리 96마리가 조사되어 들녘 곳곳이 주요 서식지로 밝혀졌다. 금개구리가 관찰된 지역의 주변 논은 대부분 친환경농업 인증 재배되었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논둑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이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 계산천이 금개구리 서식지로 발견된 적은 있지만 대장들녘에서 금개구리 서식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며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중요한 서식지로 판명되었다.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장들녘 논습지의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한강하구 생태계 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서식실태를 확인하여 논습지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019년 5월 13일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

부천시는 시민들의 환경재앙 우려에 가짜뉴스로 답하는가

장덕천 부천시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부천대장 신도시에 대해 시민·사회·정당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농단'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대장동 개발의 환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개발될 100ha의 공원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열섬현상 완화 측면의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구체적인 수치근거를 들어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곧바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신도시 개발 설명회에서 그의 환경논리가 소개되고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가 발표되자마자 '시민행동'은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을 분석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시민행동'만의 요구가 아니라 부천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그런데 장덕천 시장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변하기는커녕 사라질 논과 생겨날 공원녹지만을 비교하고 있다. 시민행동측은 사라질 논과 개발될 신도시를 비교하고 했는데 말이다. 공원녹지 이외 나머지 70만평의 산업단지, 도로, 아파트 부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열섬현상·탄소배출 등의 환경오염총량과 처리비용은 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부천 시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외부비용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결국 장덕천 시장은 대규모 건축물과 도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새로 생길 100ha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만 강조하는 등 개발에만 유리한 일방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장덕천 시장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주장은 논습지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적 가치 또한 잘못 계산하였다. 장 시장은 현재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조성될 73,788주(100ha 공원녹지 수목+가로수+주거단지 조경수)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산소 배출량은 약 23배, 열섬현상 완화는 약 200배, 이산화

탄소 흡수량은 약 32배 높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을 인용하여 **벼 및 논**의 담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적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립농업과학원에 직접 확인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그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 및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식량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저감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발간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 당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대장동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장 시장은 320ha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880톤으로 산정하였는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보다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본에서는 논**의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을 산림의 약 68.5%**라고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산림과 논**의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아직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지만, "저감효과가 적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저감효과가 적을 수도 없고, 농업을 장려해야 하는 자신들의 직분상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고 하였다. **장 시장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논**의 가치를 폄훼하고 날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논보다 환경적 가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나무의 환경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73,788주의 새로 심겨질 나무의 환경적 가치 계산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장 시장은 수목 식재를 통해 성인 25만 8,257명이 연간 사용할 산소량이 발생하고, 연간 92,23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연간 150평형 에어컨 10만 대 1,475시간 가동효과가 있고, 13,272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의 주장을 나무 1주당으로 직접 환산해보니 **연간 이산화탄소 1.2톤 흡수, 산소 0.9톤 배출, 대기오염물질 179.9g 저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계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이고, 1인당 배출량은 13톤이다. 나무 몇주 심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부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숲 조성을 장려하면서 "나무 1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고, 미세먼지 35.7g을 저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나무 1그루의 정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로세로 40m폭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아마 천년정도 온전하게 자라야 그 정도의 거대한 느티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산림청의 홍보문구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발표해온 자료와 관련 전문가의 연구결과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의 단위면적당(ha) 주요 수종별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여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20년생 소나무림과 참나무림 1ha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8.34톤, 16.08톤을 각각 흡수하며, 소나무와 참나무 1그루당

2.76kg, 9.96kg을 흡수한다고 한다. 도시 조경수는 산림수목에 비해 잎의 체적량이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탄소지킴이 도시숲’에서는 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22.6kg을 흡수하고, 산소 16.5kg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수령 20년 도시 조경수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수종에 따라 10~54kg 정도로 확인되었다. 산림청 현재 홈페이지의 내용과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른 혼선이 초대형 도시개발의 정당성에 활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도시에서는 논습지와 도시숲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논과 나무의 우위를 비교하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과 논쟁 프레임은 저급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근거에 적용하면 대장동 320ha 논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적용했을 경우(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 기준) 조경수 73,788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66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218톤이다. 장 덕천 시장이 제시한 프레임대로 비교해 보아도 320ha 논이 환경적 가치가 100ha의 공원녹지와 73,788주 조경수의 가치보다 23배, 32배 낮은 게 아니라 4.2배나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논리는 “논을 매립하고 나무 10주를 심으면 산림 1ha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과장된 주장이며, 산림 1ha를 훼손하는 대신에 나무 10주를 심으면 된다.”고 하는 저급한 개발논리에 불과하다 .

‘시민행동’은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가짜뉴스이며 정작 해야할 시민공론화 과정은 외면한 채 가짜뉴스를 앞서서 양산하고 있는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

우리의 주장

1.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짜뉴스를 홍보하고 확산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이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3.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찬반 양론이 제대로 비교·검증되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공론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19년 6월 19일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

3기 신도시 예정부지(부천대장 신도시)에서 멸종위기종 맹꽂이 집단서식지 발견

부천은 지금도! 전국에서 환경지표 최악
‘나쁜 공기 정체...초미세먼지, 열섬현상 가속화’
부천대장 신도시 발표로 시민들의 환경우려 고조 중,

시민행동, 수천마리 맹꽂이 집단서식지, 맹꽂이 집단 산란지 10여곳 발견
부천대장 신도시 철회 요구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멸종위기종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
조치 강력히 요구

3기신도시 개발부지인 대장들녘에서 수천마리의 맹꽂이 집단서식지가 발견돼 이곳의 생태
적 가치가 재확인되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금요일(26일)과 일요일(28일) 대장들녘
일대에서 맹꽂이 야간 번개탐사를 실시했다. 장맛비가 내리던 당일에 탐사가 공지되었지만
맹꽂이를 찾기 위해 이틀간 3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함께하였고
양서류전문가가 동행하여 맹꽂이 찾기에 나섰다.

맹꽂이 소리는 대장동 마을 곳곳에서 들렸고, 신도시 개발부지에서도 확인되었다. 맹꽂이
는 주로 주말농장 등 발경작지의 물이 고인 고랑에서 발견되었고, 주변 논은 대부분 친환경
농업 인증 재배지였다. 운줄게도 짝짓기를 하는 맹꽂이 한쌍을 발견하였고, 배수로에서 울
음주머니를 부풀게 하는 수컷도 촬영하였다.

어두운 밤이 되자 맹꽂이 울음소리가 더욱 울려 퍼졌다. 탐사에 함께한 양서류전문가 손상
호 선생은 한 곳에서의 울음소리가 수백마리의 맹꽂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
다. 시민행동은 이틀간 신도시 개발부지 안에서 맹꽂이 집단 산란지 10여 곳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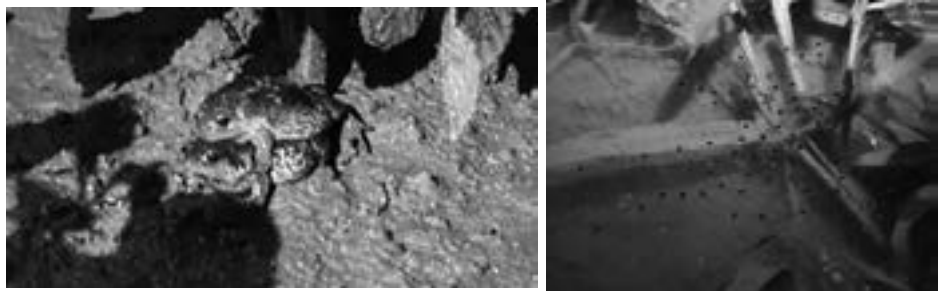


그림 25 맹꽂이 알을 여러 곳에서 발견!

맹꽁이는 연중 땅 속에 서식하며,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생긴 물웅덩이 모여 산란한다. 산란은 보통 밤에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낮에도 수컷이 울음소리로 암컷을 유인한다.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산란시기 외에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맹꽁이는 과거에 많았지만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개체수가 감소했고, 개발로 인한 습지가 사라지면서 서식지가 파괴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대장들녘은 국토부와 부천시가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104만평의 개발부지를 포함해 부천에 120만평, 서울 오곡동에 120만평, 김포공항습지 30만평과 잇대어져 있어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논습지다. 작년 6월에는 금개구리 시민탐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하루만에 96마리의 성체를 확인하였다. 대장들녘에는 맹꽁이,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37종의 법정보호종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이 확인되어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대장들녘 논습지의 생명은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고밀도 도시개발로 부천의 마지막 바람길에 막혀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가 예상돼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대장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논습지생명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2. 국토부와 부천시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라.
3.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들녘 맹꽁이, 금개구리 서식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서식지 위협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하라.

2019년 7월 29일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서울 집값 잡겠다고 부천시민 삶의 질을 파괴하는 부천대장 신도시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현재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서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고, 11월 12일(화) 오전 10시에는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촛불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 국토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해야 할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땅투기'를 핑계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나 최소한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라는 법적 절차만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선과 같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내세우는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땅투기, 토건개발로 전략할 것을 경고하는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나 주민의견수렴도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70~80년대식 토건개발의 관행에 불과하고, 차마 촛불정부라고 칭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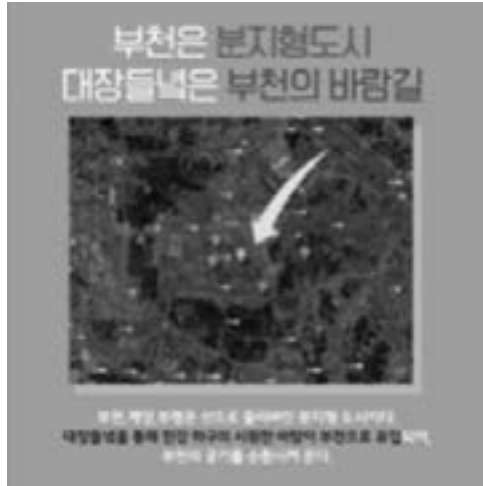
부천은 이미 녹지최저, 미세먼지 최악, 아토피와 천식으로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도시이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전국 최악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면 부천시민들은 - 특히 어린이를 가진 가정- 미세먼지 예보를 주시하면서 인근 도시에 비해 왜 부천은 더 열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PM10) 농도 상위 20개 중 부천 3개(국립환경과학원)

서울 20개 권역별 PM10 농도 상위 20개 지역 (단위: 입자/입방미터)

순위	지역명	연평균	11-12월	순위	지역명	연평균	11-12월
1위	부천시(부천시)	54	75	11위	부천시(부천시)	38	51
2위	부천시(부천시)	48	71	12위	부천시(부천시)	37	51
3위	부천시(부천시)	48	69	13위	부천시(부천시)	37	50
4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4위	부천시(부천시)	37	50
5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5위	부천시(부천시)	37	50
6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6위	부천시(부천시)	37	50
7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7위	부천시(부천시)	37	50
8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8위	부천시(부천시)	37	50
9위	부천시(부천시)	47	69	19위	부천시(부천시)	37	50
10위	부천시(부천시)	47	69	20위	부천시(부천시)	37	50



위의 지표는 부천의 열악한 대기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예정지인 대장들녘 120만 평 논습지는 분지형 도시 부천의 바람길이다.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이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시민들의 절박한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만일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로 인해 환경재앙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천시민들이 감당할 텐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부천은 정부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이다. 더군다나 분지형 도시로 대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인근 대도시인 서울, 인천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나마 한강 및 굴포천과 연계된 대장들녘은 부천의 바람길로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에 공급하는 자연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장들녘 120만평을 거의 통째로 개발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둘째, 재두루미·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개체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을 조사·분석하지 않았다.

현지조사는 5월~8월 2차례만 진행되었고, 겨울철새 현황은 20개의 문헌조사만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문헌조사 결과에서는 겨울철새 종류와 출현위치만 파악되었고 겨울철새 보호종의 개체수, 이동경로, 취·서식지 현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셋째, 금개구리, 맹꽂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 서식지 규모, 개체군 크기 등을 조사·분석하지 않았다.

평가서 현지조사에서 멸종위기 양서류인 수원청개구리, 맹꽂이, 금개구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분포지점 도면을 살펴보면 금개구리 4개소, 맹꽂이 3개소, 수원청개구리 1개소만 확인이 되었을 뿐 서식지의 규모와 개체군의 크기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획지구 내 전반적으로 서식한다고 기술만 되어있을 뿐이다.

넷째, 논(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반영하지 않았고, 논(벼)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논과 밭이 농업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작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현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립농업과학원(2008년)에 따르면 논(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당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이 기준을 대장동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은 부천시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초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환경적 우려, 부천의 대기질에 미칠 막대한 악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다. 촛불정부 운운하면서 국토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인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전문가 토론과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제대로 검증하라.

우리의 주장

1.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2.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이 야기할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3. 장덕천 부천시장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시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2019년 11월 11일

대장들넉 지키기 시민행동

3기 신도시 문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되는 3기 신도시, 시급성도 실효성도 없다 -

정부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2026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예정지는 서울경계선 2km 이내의 연접지역 3,274만㎡으로 기추진되고있는 인근 과천등의 대규모 개발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로 여의도(290만㎡)의 11.8배나 된다. 특히 부천 대장은 99.9%, 안산 신길은 100%. 장상은 97%,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이며,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2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3기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 확산은 물론 그린벨트의 숲과 농지의 대규모 훼손과 출퇴근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가속화, 도시 온도 상승 등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즉 정부의 3기신도시정책은 한마디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103%이고, 수도권 공급예정 물량만 14개 지구, 62만 가구 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실제 2기 신도시인 판교의 경우, 분양가가 수용가 대비 무려 52배 상승하여 공기업, 지자체, 건설업자의 투기 잔치상으로 변질된 바 있다.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정책목표라면, 출퇴근이 필요없고, 환경훼손없는 도심의 유희부지나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 공공이 보유한 국공유지, 공기업 이전지 등에 공영개발을 통한 영구공공 임대주택을 OECD수준으로 늘리고, 보유세 인상을 통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귀를 막고 있다.

뿐만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문수 전경기도지사가 GTX를 추진할 때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더니 지금은 제3기신도시 주택수요를 늘려 비싼 GTX의 적자를 메꾸어 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되는 '3기 신도시'라는 초대형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타당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탑-다운방식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안된다. 경기도에는 지금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적 도시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천대장의 경우, 3년 전 부터 '대장 산업공단 계획'의 환경파괴로 인한 시민사회와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우리는 경기민들의 공론화과정도 없이 보수정권도 하지 않았던 개발특별법에 의 한 대규모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촛불정부'를 보면서 되묻고 싶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는 시대정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허함이 왜 실종되었는지, 개발·투기세력과 야합한 이 기괴한 모습은 무엇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제3기신도시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¹⁶⁾’을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시민공론화를 앞장서서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제3기신도시개발로부터 경기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더불어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

1. 국토부는 최소한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
3.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3기 신도시’가 초래할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라.

2019년 12월 6일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부천대장 신도시, 일방적인 지구지정을 우려한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2026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예정지는 서울경계선 2km 이내의 연접지역 3,274만㎡으로 기추진되고있는 인근 과천등의 대규모 개발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로 여의도(290만㎡)의 11.8배나 된다. 특히 부천 대장은 99.9%, 안산 신길은 100%. 장상은 97%,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이며,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2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3기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 확산은 물론 그린벨트의 숲과 농지의 대규모 훼손과 출퇴근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가속화, 도시 온도 상승 등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즉 정부의 3기신도시정책은 한마디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103%이고, 수도권 공급예정 물량만 14개 지구, 62만 가구 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실제 2기 신도시인 판교의 경우, 분양가가 수용가 대비 무려 52배 상승하여 공기업, 지자체, 건설업자의 투기 잔치상으로 변질된 바 있다.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정책목표라면, 출퇴근이 필요없고, 환경 훼손없는 도심의 유휴부지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공공이 보유한 국공유지, 공기업 이전지 등에 공영개발을 통한 영구공공 임대주택을 OECD수준으로 늘리고, 보유세 인상을 통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귀를 막고 있다.

뿐만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문수 전경기도지사가 GTX를 추진할 때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더니 지금은 제3기신도시 주택수요를 늘려 비싼 GTX의 적자를 메꾸어 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되는 '3기 신도시'라는 초대형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타당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탑-다운방식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안된다. 경기도에는 지금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적 도시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천대장의 경우, 3년 전 부터 '대장 산업공단 계획'의 환경파괴로 인한 시민사회와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우리는 경기민들의 공론화과정도 없이 보수정권도 하지 않았던 개발특별법에 의 한 대규모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쫓불정부'를 보면서 되묻고 싶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는 시대정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허함이 왜 실종되

었는지, 개발·투기세력과 야합한 이 기괴한 모습은 무엇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제3기신도시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¹⁵⁾’을 명시한 바 있다.

15) 2019년 11월 12일 개최된 ‘대장동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는 수많은 전직 부천시 공무원들이 땅주인으로 참석해서 논쟁을 찌푸리게 하였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시민공론화를 앞장서서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제3기신도시개발로부터 경기도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더불어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

1. 국토부는 최소한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
3.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3기 신도시’가 초래할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라.

2019년 12월 6일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70년대식, 구시대적 주민공청회, 국토부와 LH를 규탄한다!

정부(국토부)는 지난 5월, 기습적으로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10월~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11월 12일 주민설명회 실시, 12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빠른 속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는 3기 신도시라는 초대형 개발사업의 주체인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도 않은 채, LH와 용역업체가 진행하면서, 개발주체인 국토부가 부천 시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가뜰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대규모 토건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부천시민의 삶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개발 시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토지주들이 원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절차에 초점을 맞춰 설명회를 진행,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상절차로 논점을 흐리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늘(12월 19일)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는 부천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최소한 절차와 내용의 적절성은 갖출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공청회 진행 관련사항과 내용에 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담당자는 따로 있다, 그 부분은 답변해줄 수 없다, 그날 와보면 안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해야 할 국가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청회에 이어 보상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사전공지로, 주민설명회에 이어 또 다시 공청회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부천 대장에 앞서, 3기 신도시개발지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에서도 지난 6월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설명의 자리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책임있는 자세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과밀, 환경훼손, 미세먼지 심화, 그로 인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저하, 시민건강

침해, 지속가능한 발전저해 등을 우려하는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우리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형식적인 법적절차만을 진행하는 국토부와 LH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들의 생각과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시민공론장을 마련하여 요식적인 행위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2.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이 야기할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3. 장덕천 부천시장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시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2019년 12월 19일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환경 파괴, 수도권 과밀화, 집값상승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판교, 위례 등 투기조장, 집값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독재정권에서도 유지되어 온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파괴로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집값상승을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땀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한채당 3억원이 폭등했다. 정부는 수도권 허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km²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km²를 이미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하고 말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 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전례없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길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까지 앞장서서 해제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숲 조성은 6km²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부에게 있어 도시 철학, 생태 철학이란 존재하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파괴, 투기조장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높은 투

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 만큼 환경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반대만 강조하지 말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주택은 시세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환경파괴, 집값상승, 투기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 당장 중단하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균형개발에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실책 집값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사과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장들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도권 3기 신도시, LH 직원과 선출직 의원들 투기 의혹 전면 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100억대 규모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보도되며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가 막혀 하면서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5년에는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수사가 진행되었고, 투기 사범 중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되어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집단으로 땅을 매입,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국민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도 추가적인 대책 없이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부천의 경우 김만수 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공직자, 시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2017년도에는 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 본인과 가족들이 개발예정지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자 어쩔 수 없이 매각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시의원은 대장동 산업단지 추진위원으로까지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땅을 골라 본인 명의로 매입하는 대담함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9년 11월 12일에 있었던 부천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회의장에는 개발을 바라는 토지주들이 가득 찼는데 그 자리에 부천시 퇴직공무원들도 여러 명 참석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최근 부천의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이 투기 의혹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시절 배우자가 매입한 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어제자 jtcb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소수의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내부정부를 활용해 차명거래, 땅투기 등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누구나 아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손 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민해야 하는 LH와 국토부, 선출직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땅투기로 개인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LH 직원들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전·현직 지역정치인까지 조사해야 하며,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이번 땅투기 논란 이전에도 그린벨트와 대규모 농지 훼손 등 환경문제,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 확산으로 인한 인구 과밀문제, 경기도민의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땅투기 의혹은, 서울 집값을 위해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희생양으로 삼고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에 한번 더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21년 3월 9일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기의혹부터 해소하라

국토부와 LH, 정관계 인사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제대로 된 전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시각에도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선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며, 개발은 시간표대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광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부천시도 정부 조사와는 별도로 공직자와 도시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가 이번 LH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자체조사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소속 공무원의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면피성 셀프조사'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시가 단순히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겉핥기식 조사로는 투기의혹 공무원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하나하나한 요식행위로는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10년간의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하여 차명거래까지 밝혀내야 하며,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2015년에 '대장 산업공단'을 추진한 바 있고, 2019년 대장신도시로 지정되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에 있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여러 명 참여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부천대장 신도시 대상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예정지로 알려지면서 지난 20여년간 투기 대상으로 전략하였고, 각종 투기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국토부와 LH는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4월 중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등 개발행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상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31일 최종 여야합의에 실패하여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의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LH 사태는 집값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다.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골몰하고 힘써야 할 LH와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적이익을 불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라.
2. 국회는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재정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3. 정부와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행위를 중단하라.

2021년 4월 6일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8. 대장들녘 지키기 관련자료

1) 대장들녘 생명포럼 발표자료 (1~9차)

1차. 대장들녘이 품은 생명과 우리 미래-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대장들녘 논습지 시민참여 활동 -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2차. 도심 대기오염과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장들녘의 역할
발표. 친환경 부천을 위한 도시 미기후환경 이해
- 정응호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3차. 도시의 대기오염과 시민건강
발표1. 부천의 미세먼지 현황 (대기질 조사결과 발표)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발표2. 도시의 대기오염과 시민건강
- 임종한 교수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4차.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발표1.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5차. 생명의 땅 시흥 호조벌 탐방: 생태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
- 안내 : 시흥지속협 강석환 사무국장

6차. 논습지를 지키면서도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환경경제의 사례와 비전
발표. 일본 토요오카 사례로 본 지역을 살리는 환경창조
-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분부장, 전 SBS 환경전문기자)

7차.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 영향평가
발표. 대장들녘 생태요충지 공유화 방안
- 전재경 박사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8차. 대장들녘, 사람과 자연을 품다
- 특별강연: 김정욱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9차. 3기 신도시, 서민주거안정인가? 투기인가?
발표: 김현동 본부장(경실련 부동산건설본부)

-
- 2) 환경생태연구재단·생태환경연구회청미래(2017), 부천 대장동 학생 제비모니터링단 심포지엄 보고서

 - 3) 물푸레생태교육센터(2016), 양서류 보전을 위한 생태문화콘텐츠구축 연구

 - 4) 대장동주민협의회(2015), 대장동마을보고서

 - 5)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2014) 김포공항 골프장 계획부지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고서

 - 6) 613지방선거 부천시장후보 정책질의서

 - 6-1) 613지방선거 부천시장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 7) 613지방선거 경기도 인수위 정책제안

 - 8)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 시민캠페인 카드뉴스(1~3차)

 -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도시개발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 10) 경기도 정책토론회,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자료집

 - 11) 대장들녘 양서류 등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서울시립대
-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종합보고서

생명의 보고(寶庫)

부천 대장들넉

지키는 사람들 vs 개발하려는 사람들 (2011~2022)

펴낸날 2022.4.22

펴낸곳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녹색시민모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녹색당,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디자인 손수지음 | 남수지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종합보고서

생명의 보고(寶庫)

부천 대장들녘

지키는 사람들 vs 개발하려는 사람들 (2011~2022)

펴낸날 2022.4.22

펴낸곳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녹색시민모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녹색당,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나가는 부천연대

디자인 손수지음 | 남수지